

‘특허갑질’ 퀄컴, 과징금 1兆 확정

필수특허 ‘공정 제공’ 협약 불구 삼성 등 칩셋 기업 판매처 제한 폰 제조사에도 특허권 강제계약 대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01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퀄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남용 행위 조사 착수
2016년 12월	공정위, 퀄컴의 3개 회사에 과징금 1조311억원 부과·시정명령
2017년 2월	퀄컴, 공정위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제기
2019년 12월	법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적법 판단
2023년 4월	대법, 퀄컴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FRAND를 어기고 삼성·인텔 등 칩셋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이 모뎀칩셋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이들 퀄컴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퀄컴이 칩셋을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고, 이렇게 강화한 칩셋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퀄컴은 이듬해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 역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퀄컴은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박길경 기자 ekpark@



어떤 창업이 좋을까 13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6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업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우물 안’ 韓시스템반도체 8년째 시장 점유율 3%대

메모리반도체 치중 기형적 사업구조 소밸류체인 성장 생태계 마련 절실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8년째 3%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영업 실적을 기록하는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관련기사9면 13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한국의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015년 3.6%에서 2016년 3.1%, 2017년 3.0%, 2018년 3.1%, 2019년 3.2%, 2020년 2.9%, 2021년 3.0%, 2022년 3.1%로 집계됐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500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시스템반도체의 비중이 60%가량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기형적인 구조다. 원인은 시스템반도체의 설계자산(IP)·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전 밸류체인에 걸쳐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서균 한국 팹리스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팹리스가 망하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며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운드리도 갈 길이 멀다. 다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15.8%로 1위인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58.5%)와는 40%포인트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초강국’을 위해 이미 세계 1위인 메모리에 더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 시스템반도체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성전자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해 현재까지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위해 밝힌 중앙기투자 계획을 합치면 500조 원 규모에 이른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특정 전방산업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 외부 요인에 쉽게 휘둘리는 일종의 코인판이 된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citizen@·정효진 기자 js62@

IBK기업은행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쁘게도 합니다. 가슴 아픈 실패에 울고, 보란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13년 전부터 ‘칩셋 독립’ 나선 삼성… “업계 영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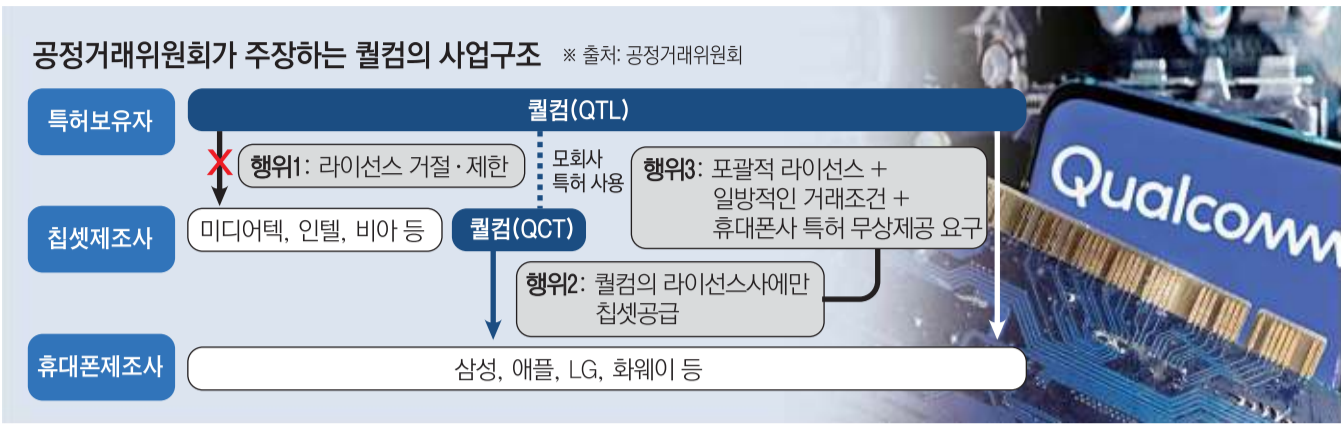
대법판결 IT업계 미치는 영향

거래관행·협상력 크게 개선
퀄컴 의존도 줄인 것도 원인
글로벌 경쟁 ‘원천기술 확보’ 핵심

13일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IT 업계는 거래 관행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패소하는 등 약 6년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부당한 계약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며 “그사이 삼성전자 등의 협상력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공정위가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칩셋을 판매하는 회사다. LTE·5G 등 데이터 신호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라이선스 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SEP)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용 칩셋을 삼성전자 등에 팔면서 독점보유한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약속

(FRAND)했으나 이를 어겨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봤다. 퀄컴이 프랜차이즈로 독점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아 놓고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며 2016년 12월 1조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국내에서만 적용되나 일본, 중국 등 해외 기업들이 퀄컴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국내 사례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 제조사들이) 특허 로열티 부문에서 일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세계 스마트폰 1위인 삼성전자가 퀄컴 칩셋 의존도를 낮춘 점도 주목했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를 생산 중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AMD와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한 엑시노스2200을 지난해 결

럭시S22 시리즈에 적용했다가 GOS(게임최적화서비스) 논란이 일자 2년간 갤럭시 S 시리즈 적용을 중단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시리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100% 탑재했다. 업계에선 2025년부터 엑시노스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 칩셋 매출액은 9조3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49.9% 급증하는 등 원가 부담이 커졌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퀄컴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원가 절감 등 여러 부분에서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사례를 통해 특허를 무기로 많은 이익을 챙기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효진 기자 js62@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6년 소송전 승리한 공정위 “특허갑질 엄정대응할 것”

“IT혁신, 독점·폐쇄 생태계 안돼”
글로벌 공룡기업에 ‘1조 어퍼컷’
다음 타깃 구글… 421억 과징금

6년간 이어져온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제 통신업체 퀄컴의 1조 원대 과징금 소송전이 공정위 승리로 일단락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정위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퀄컴에 공정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조311억 원의 과징금 부과액을 이미 퀄컴으로부터 받아 낸 상태다. 이러한 공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 후 이지훈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이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4월에는 해당 사건의 심결이 공정위

의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 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

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공정위의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행위 차단 정책 및 제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시장을 선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11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넷마블 등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에 대해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온투업 대출 72%가 부동산... 연체율 폭등에 부실 그림자

③ 부동산PF 대출 쏠림 심각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개인 간 거래)에도 부실 우려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법정 자본금 요건을 채우지 못해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살아남 P2P 업체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 온투업 전체 대출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70%가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위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13일 온투업중앙기록관리기관 P2P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온투업계 상품 유형별 대출잔액은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72.3%에 달했다. 개인 신용대출(12.6%)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온투업계가 부동산PF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PF 대출은 개인 혹은 회사의 신용도나 담보 대신 부동산 사업계획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반대일 경우엔 원금 찾기도 어렵다.

업계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대출 형태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중금리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싶어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시 리스크 측정

신용대출 비중은 12.6%에 불과 제도권 진입 초기... 담보 볼 수밖에 2월 부동산 연체율 8.75%로 급등 기관투자 길 열렸지만 모집 어려움 "하반기부터 파산 기업 나올 것"

이 어렵기 때문에 (중금리 대출 상품이) 매력적이지 않아 꺼린다"며 "온투업이 제도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담보가 눈에 보이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 등에 투자를 늘리려면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할 여력이 되는 기관투자 확보가 중요하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0년 8월 온투업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금융당국은 온투업계에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뛰어넘을 '징검다리' 기능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어려운 경제, 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



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 대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PF대출 쏠림 현상이 뚜렷한 온투업계 주 이용자가 중저신용자들이라는 게 문제다. 온투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8.75%로, 지난해 6월 말(1.87%)과 비교하면 8개월 새 7%포인트(p) 급등했다.

업계 전체 평균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은

7.58%로 지난해 6월 말(3.02%)보다 4.56%p 뛰었다. P2P 대출의 경우 대환이나 대출 연장이 어렵다. 이렇다 보니 이자 상환 능력은 있어도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들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온투업계 상품은 기관 투자가 막혀 있어 대출 상품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집행되다 보니 개인 손실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업권법 교통정리 문제로 기관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고 플랫폼 광고를 '중개'로 유권해석하면서 개인투자자 모집까지 힘들어진 게 (온투업계의) 규모 성장을 저해했다"며 "최근에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 악화와 연체율 급등으로 투자자 모집이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온투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다. 조치가 늦어지면 올 하반기부터 무너지는 온투업체도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업계 7위 규모의 온투업체 그래프펀딩도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악화로 파산 선언을 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부동산PF 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도 "특히 올해 부동산PF 대출 상품의 경우 신규 상품을 내놓기보다 기존 상품 상환에 집중하는 등 연체율을 방어하는 형태의 운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자금 지원, 급한 불 끄겠지만 미분양 털어야 연쇄 부실 해결”

정책금융 공급 23조→28조 확대 브리지론→본PF 전환 위해 보증

“정부 직접적 지원책에 한계 있어 할인분양·세제혜택 간접 지원을”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위기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 일부 저축은행에 PF발(發) 악성 루머까지 잇따라 양산되면서 금융사들도 연일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공포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보다 미분양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3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맥코 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시장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이상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컨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국내 금융사들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불뚱이 부동산PF 위기설로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역시 부동산 PF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각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밀착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는 점도 강조했다.

당국의 부동산PF 지원 정책은 크게 △정상 사업장 △사업성 우려 사업장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나뉜다. 부동산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3조4000억 원에서 28조4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양호한 PF 사업장에는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공사(HUG)를 통한 2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실시한다. 특히 단기 자금인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을 3조 원 규모로 신설해 증권사나 건설사의 차환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PF대주단 협약을 이달 중 가동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부동산PF 부실 우려에 대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연쇄 부실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센터 부동산팀장은 “국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할인분양이나 세제 혜택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 위험 관리지역에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양도세를 5년 내 완화해주는 방안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건강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시작됩니다

- 매년 30%의 질병 조기발견**
- 성·연령별 맞춤형 검진**
일반검진(본인부담금 없음)
암검진(일부 본인부담금 10% 있음)
- 10년간 건강흐름을 한눈에**
The 건강보험 앱(APP)
- 상담 및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dr.k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韓 '기술력' + 美보잉 '인프라' ... 미래 항공기 개발 '원인협력'

항공·우주·방산 협력 강화

BDS CEO 10년 만의 방한
산업장관과 실무협의 논의
조만간 공동개발 MOU 체결
"韓 항공산업 투자 요청"에
"KAI 등 면담 후 추진" 화답

미국 보잉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우리 항공·우주·방산 기업의 의견을 토대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한다. 정부와 보잉의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테드 콜버트(Theodore(Ted) Colbert III) 보잉 항공방산 부문(BDS) CEO를 만나 한국과 보잉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보잉은 △민수 및 군수 미래 항공 분야 공동개발 △민군겸용



이창양(맨 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테드 콜버트(맨 왼쪽) 미국 보잉사 항공방산 부문 CEO가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 한국과 보잉사 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술협력 및 국내 투자 확대 △보잉의 항공기 구조물과 소재·부품에 국내기업 참여 확대 △보잉 공급망 회의 한국 개최 정례화 △보잉코리아 기술연구소(BKETC)의 인력 및 기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한국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보잉에게 소개하고 항공우주용 반도체,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디지

털 생산시스템 등 공동 연구개발(R&D) MOU 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우수한 기술력과 일정관리로 경쟁력을 입증해온 한국 기업들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보잉의 미래 항공기(민수·군수)의 체계 및 구성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하면서 산업부가 추진 중인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펀드'에 보잉의 적극적 참여도 요청했다.
이에 보잉 측은 산업부와 공동 연구개발 양해각서는 내용을 확정된 단계이고, 투자펀드는 규모와 투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한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한화, LIG넥스원 등 최고 경영자들과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과의 항공우주방산 협력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보잉 측은 "보잉사의 BDS CEO가 방한하는 것은 10년 만이고, 2019년 BKETC 설립 이후 현재 65명의 한국 연구 인력이 근무 중으로, 앞으로 연구 범위와 기능을 확대해 보잉의 글로벌 핵심 연구개발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보잉 간에는 한미동맹 70년과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잉이 한국에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화해 실행하도록 하고, 보잉과의 MOU 체결,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투자 유치 등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전기버스 大魚' KB가 낚았다 피라인모터스 연내 IPO 추진

〈전기버스 업계 2위〉

전기버스 업계 2위권 업체 피라인모터스가 KB증권을 단독주관사로 선정, 연내 기업공개(IPO) 추진에 나선다.
13일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피라인모터스는 KB증권을 IPO 단독주관사로 사실상 선정했다. 빠르면 올해 안에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라인모터스는 최근 고속 성장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거듭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하나증권으로부터는 전환사채(CB)를 발행 통해 200억 원을 투자 받았다. 최근에는 삼일 PwC를 주관사로 선정, 500억 원 규모 투자유치에 나섰다.



연내 상장, 단독주관사로 선정
4년간 평균 84% 성장한 기업
에디슨모터스 퇴출... 업계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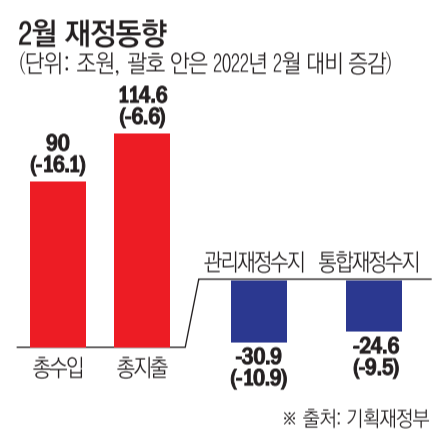
앞서 2021년 말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에스티리더스 PE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전기버스 업계에 후발주자로 발을 들인 피라인모터스는 주요 글로벌 제조사의 부품을 채용한 전기버스 개발·판매 업체로 각광을 받으며 급속도로 몸집을 키웠다. 2021년에는 전기버스 100대 판매에 성공하며 4년만에 업계 3위권으로 올라섰다. 성장속도는 4년간 연평균 84%에 달한다.
지난해엔 전기버스 판매대수를 241대로 늘렸다. 잔여 계약 물량은 594대로 향후 1800억 원 규모의 수주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에 주력하던 시내버스에 이어 시장규모가 큰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으로 시장을 넓혀가면서 실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 피라인모터스의 전기버스 매출액은 2019년 127억 원, 2020년 190억 원, 2021년 339억 원, 2022년 792억 원에 이어 올해는 3000억 원 이상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피라인모터스가 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와 양강구도로 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피라인모터스는 2021년 기준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자동차(35.3%), 2위에 디스모터스(8.0%)에 이은 점유율 3위(7.8%)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 점유율 2위인 에디슨모터스의 퇴출로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피라인모터스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현대자동차와 피라인모터스가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의 80%를 양분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피라인모터스는 최근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도 진입, 인프라 공급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철도 및 트램 사업 등 신사업도 계획 중이다. 전기버스 제조 공정을 업그레이드할 화성공장의 이달 말 준공도 앞두고 있다. 화성 공장에서는 월 8대 전기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박상민 기자 si2020@

1~2월 총수입 16.1조 감소... 나라살림 31조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경기둔화·부동산 침체 영향 국세수입, 역대 최대폭 감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 대폭 감소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조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같은 세수감소는 경기둔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여파에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많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까지 겹친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이연 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8조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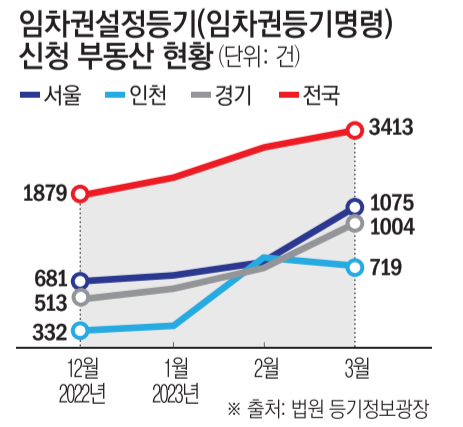
억 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6조9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2월 누계 기준 소득세(24조4000억 원)가 부동산 거래감소 등 자산시장 둔화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3조4000억 원)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이연 기

저효과 등으로 7000억 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교통세도 경기 둔화 지속과 세수이연 기저효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등으로 각각 5조9000억 원,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어 8000억 원 감소했고, 관세도 7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1000억 원이 덜 걷혔다.
2월 누계 총수입은 90조 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 원 줄었고, 총지출은 전년 대비 6조6000억 원 감소한 114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4조6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9조5000억 원 확대됐다. 2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재정집행 지원을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14조 원 증가한 106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전세보증금 떼일라... 법원 찾는 세입자 급증

수도권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대
수도권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경고 등이 켜졌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 향한 사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 내림세가 이어진 데다, 올해 들어선 전세마저 급락하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 (집합건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신청 건수는 1075건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도 역시 지난해 1004건으로 서울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1000건을 넘겼다. 이 기록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1월 이후 13년 3개

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근 일 년을 기준으로 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매달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해 10월 368건에서 12월 681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후 올해 2월 79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000건 이상의 신청이 몰렸다.
경기지역은 서울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31건에서 11월 465건, 12월 513건으로 서울보다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월(630건)과 2월(737건)에는 전월 대비 100건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서울과 비슷한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의 진원지인 인천 역시 지난 1월까지 399건에 그쳤지만, 2월과 지난해 각각 793건과 719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부쩍 늘



어나는 등 급증 조짐을 보인다.
수도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하면서 전국 기준 신청 건수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3월 전국 신청 건수는 799건(수도권 543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3413건(수도권 2798건)으로 늘었다. 일 년 기준 변동률은 약 327%에 달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었다는 뜻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尹 방미 전후 2차례 국가전략회의의...“통상이슈 집중 논의”

반도체 업계 리스크 점검 등 산업부, 회의 준비 이미 착수尹 방미 전 IRA·반도체법 등 통상이슈 정부입장 정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2차전자·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의제로 최근 반도체 감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하락이 커지면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한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리스크를 체크해 반도체 기업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라며 “기준에 발표된 산업단지 등 대책도 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점검하고 ‘플러스알파’가 무엇인지 있을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국가전략회의의 준비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의 상황을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감산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국가전략회의에서 추가로 지원해줄 것이 있는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15개 국가산

단을 지정했는데 입지를 빨리 잡아 입주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와 협력업체 클러스터링이 되도록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보조금을 주는 효과에 더해 본래 자부담인 도로와 용수 등 인프라 조성도 정부가 나설 것”이라며 “여기에 반도체 특성과 대학을 통한 인력수급 지원까지 빠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전자와 반도체는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과의 통상이슈가 걸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전략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이슈의 경우 특히 2차전지가 주목된다. IRA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1위인 중국이 배제될 경우 2위인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른 수혜를 극대화시킬 방안이 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

통상이슈가 중요 의제 중 하나로 오늘 공산이 큰 만큼 국가전략회의는 2차전자와 반도체를 나눠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전에 한 차례 열고, 윤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또 한 번 개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차전자와 반도체의 논의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호 기자 uknow@



간호법 불발... 野의원들 '빈손 퇴장'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상임고문 해촉’에 발끈한 홍준표 “어이없는 당, 보고만 있지 않을것”

김기현 “현직, 고문 안맡는 게 관례” 洪 “영똥한 데 화풀이, 만만하신가” 당내서도 “별집 쑤신 격” 우려 시선

국민의힘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해촉 소식을 접한 홍 시장은 “내가 잘못되어 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나”라며 반격을 예고했다. 여권 안팎에서도 “별집을 쑤신 격”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지체장으로 활동한 사람은 없는 게 관례였다”며 “그에 맞춰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일 없도록 요구한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홍 시장을 직격했다. 앞서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전 목사를 둘러싼 김 대표의 대응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바로 자신의 SNS에 “영똥한데 화풀이를 한다”며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쓰아 붙였다. 그는 이어 “문제 당사자 징계



는 안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라며 “강단 있게 당 대표 하라고 했더니만 내가 제일 만만 했는지 나한테만 강단 있게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입당 30여 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 본다”며 “내참 어이없는 당이 되어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 안팎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상임고문 면직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 본다”며 “정당에서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똥똥이 찌질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는 작년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대를 무릅쓰고 위촉한 홍 시장을 해촉한 것은 “모순의 끝”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사람을 써먹고 필요가 없으면 버린다”며 “이준석 대표를 토사구팽하더니 경쟁자 유승민·안철수·나경원까지 썩 다 죽였다. 사람이 쓰고 버리는 물건이냐”고 격앙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제는 홍준표 지지자까지 밀어내면 우리 당 지지율이 어떻게 남아나냐”며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은 ‘연대포기탕’ 이냐. 이러니까 자꾸 한동훈 차출설 심지어서는 비대위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Aa2 Moody's 국제 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한은, 국민연금과 350억弗 외환스와프... “환율안정 효과”

기관發 ‘환율 변동성’ 최소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지난해 이어 또다시 통화스와프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2023년말까지 3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두 기관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급등하자 환율 안정을 위해 14년 만에 100억 달러 한도로 외환스와프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

국민연금 해외 투자 위한 달러 한은서 작년 3배 이상 제공 합의 대형 환전 막아 원화 가치 방어 만기 때 한은으로 전액 환원

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거래를 재추진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널뛰기 장세”가 지속됐다. 그 결과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05.73원으로 2월 1270.74원보다 2.8% 상승했다. 특히 3월 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폭은 8.7원으로 전월(7.8원)에 비해 컸다. 변동률은 0.66%로 주요국 가운데 브라질(0.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두 기관은 원화값의 추가적인 추락을 멈추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외환스와프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이해의 투자를 늘려오면서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현물로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환전 수요가 발생해 원화 약세를 부추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화

스와프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한은에 원화를 제공하고 한은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달러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이 한은에서 달러를 구매하는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아도 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 “예전과 달리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과거처럼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단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정책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

율의) 큰 변동성에는 대처 방안도 있다” 강조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로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역시 이번 거래를 통해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거래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하나로마트, 한우 20~40% 할인 1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소프라이스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시식행사가 열렸다. 전국 7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열리는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전국 소매 평균가격 대비 등심은 20%, 불고기·국거리는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는 이날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폭우로 라운딩 멈추면 1홀 단위로 요금 계산

골프장 불공정 약관 시정

안전·분실사고 ‘면책’ 조항도 수정

앞으로 골프장 이용 고객이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중단되더라도 골프장 운영 사업자에 이용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홀 단위에 따라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등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 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다수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골프장들은 약천후로 경기가 중단될 경우 2홀 이상 9홀까지는 요금의 50%를 부과하고, 10홀 이상의 경

우 요금 전액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발생 시 골프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업자 역시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자격 제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들을 스스로 시정했고, 심사 대상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1분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작년의 6배

국내 인력공급도 15% 늘어 숨통

올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늘어나면서 농번기 농촌 일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늘어나고, 고용인력 수급 사정도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분기 8666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73명에서 6배 이상 늘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지난해 2만2200명에서 73% 늘어 역대 최대인 3만8418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2월에

이뤄지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를 전년 10~12월로 앞당겼고, 외국인 근로자의 빠른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을 통해 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및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인력도 농촌인력증가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에 연인원 10만 명 수준을 공급해 전년 동기 8만 7000명보다 15% 증가했다. 농촌인력증가센터도 지난해 154개소에서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부와 협업체 시·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한 도시 유입 인력의 유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연일 뿌영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 1만톤 줄었다

(2016~2020년)

제철소·경유화물차·축산농가 등 배출량 재산정 결과 대부분 개선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백만분의 1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가 2016년 6만9768톤에서 2020년 5만8558톤으로 1만1210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외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도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센터)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을 개선해 2020년 배출량 산정 결과와 2016~19년 배출량 재산정한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센터는 2020년 8월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실태감사 이후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그해 12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개선 이행안’을 마련, 이를 기반으로 누락 배출원을 찾아내고 기존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개선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는 제철용 무연탄 사용량 중복개선 등 17개 배출량 산정 방법을 개선해 2020년 배출량 산정부터 반영했으며, 장기간 배출량 변화추세 등을 분



13일 서울새내기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석하기 위해 2016년 이후의 배출량도 재산정했다.

주요 배출량 개선사항은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무연탄 사용량 중복산정 개선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연식별 등록대수 개선 △경유화물·승합 대상 강화된(Euro6) 기준에 맞는 배출계수 적용 △자동차 속도를 고려하여 배출계수 세분화 농업 부문 돼지 연령(생장기간)에 따른 암모니

아(NH3) 배출계수 개선 적용 △비산먼지 부분 나대지(운동장) 면적 자료 개선 적용 등이다. 재산정 결과, 2016년 대비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대부분 항목에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는 2016년 6만9768톤에서 2020년 5만8558톤으로 1만1210톤(16.1%) 줄었다. 황산화물(SOx)은 31만3210톤에서 18만157톤으로 3만3000톤(42.5%), 질소산화물(NOx)도 126만6587톤에서 92만9227톤으로 33만9000톤(26.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역시 103만5629톤에서 99만629톤으로 4만5000톤(4.3%) 감소했다. 다만 암모니아(NH3)는 25만8268톤에서 26만1207톤(1.1%) 소폭 증가했다.

센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에 대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 대기 개선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정 결과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air.go.kr)을 통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며, 사용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선된 배출량 산정 방법과 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는 6월에 배포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

눈앞에 펼쳐질 ICT세상, SK하이닉스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침체 전망하며 금리 올린 美연준... 내달 긴축행보 촉각

3월 FOMC 회의록 공개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달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내 경기침체가 올 것을 전망하면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3월 FOMC 회의록에서 "최근 있었던 은행 부문에서의 사태가 가져올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들은 완만한 경기침체가 올해 하반기 시작되고 이후 2년 동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한 은행 위기를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금융시장 문제와 관련된 경기침체는 일반적인 경기침체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

“올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침체 회복까지 2년 정도 걸릴 가능성”

물가 상승 둔화에도 투심 위축 시장선 추가 금리 인상 힘 실려

리의) 목표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놓고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며 "이들은 최근 은행 위기와 누적된 긴축의 재정·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위원들은 연준과 다른 정부 기관이 협력해 취한 조치가 은행 상황을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적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며 "최근 나온 경제지표와 인플레이션율을 2%까지 낮추겠다는 약속



을 토대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간 연준은 경기침체가 적어도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번에는 회의록에까지 직접 명시했다. 시장은 곧바로 흔들렸다. 나스닥지수가 0.85% 하락하는 등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내렸다.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소식도 투

자자들의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날 미 노동부는 3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상승 폭은 시장 전망치(5.1%)와 2월 기록(6%)을 모두 밑돌았다. CFRA의 샘 스톨발 투자 전략가는 "3월 CPI는 연준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도록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에버코어ISI의 에드 하이먼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며 "연준은 금리 인상 캠페인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 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상공 회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긴축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 추가 조정 없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만큼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뉴욕대가 주최한 행사에서 "결국 우리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추가 인상에 힘을 보탤다. 고대영 기자 koda00

손정의-마윈 결별하나...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지분 또 매각

작년 이어 72억달러 주식 내던져 보유 알리바바 지분 34%→3.8% ARM 상장 앞두고 자금수혈 포석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 지분을 거의 털어냈다. 잇따른 투자 손실에 현금 확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올해 들어 72억 달러(약 9조5500억 원) 어치의 알리바바 주식을 매각했다. 지난해 290억 달러가량 지분을 매각한 뒤 올해에도 대량 매도에 나선 것이다. 이 소식에 뉴욕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6% 급락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선불 선도계약(Prepaid Forward Contracts)'을 통해 이뤄졌다.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 주식을 매각하는 것을 담보로 미리 현금을 받는 일종의 옵션 계약이다. 계



마윈(오른쪽) 알리바바 설립자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201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약 만기 전에 소프트뱅크는 현금 또는 알리바바 주식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 FT는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 지분을 되사들이는 대신 주식을 넘기는 것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프트뱅크의 알리바바 지분은 이제 3.8%로 쪼그라들게 됐다.

손정의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알리바바의 오래된 투자자였다. 그는 2000년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스타트업이었던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

다. 소프트뱅크는 2014년 지분이 34%에 달해 최대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의 투자펀드인 '비전펀드'가 막대한 투자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2020년 마윈 알리바바 설립자가 중국 금융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가 회사가 이후 몇 년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시달리면서 비전펀드 포트폴리오에도 타격을 줬다. 알리바바 주가는 2020년 고점 대비 70% 넘게 급락했다.

이번 알리바바 지분 매각은 소프트뱅크

가 전례 없는 투자 손실과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뉴욕 상장을 앞두고 자금 조달이 시급한 가운데 나왔다. ARM 상장에 앞서 알리바바 지분을 처분해 지난해 비전펀드의 투자 손실을 메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리바바 주가가 그동안 부진하면서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가 8년 전 뉴욕 증시에 데뷔했을 당시와 비슷한 가격에 지분을 팔게 됐다. 금융정보업체 워싱턴서비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 14개월간 알리바바 주식 3억8900만주를 평균 92달러에 팔았다. 고점 가격이 317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FT는 "알리바바가 곧 6개 회사로 분할해 새 출발을 하는 만큼, 마윈의 오랜 후원자인 손 회장의 역할도 사라진 것"이라고 짚었다. 전년 소프트뱅크는 계열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 아시아를 매각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동남아 업은 中수출 반년 만에 깜짝 반등

중국의 3월 수출이 예상을 깨고 6개월 만에 증가했다.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이날 중국의 3월 수출(달러 기준)이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한 3155억 달러(약 414조2515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7.1% 감소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를 뒤엎고,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같은 기간 수입은 1.4% 줄어든 2274억 달러로, 두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시장 전망인 마이너스(-) 6.4%보다는 감소 폭이 작았다. 무역수지는 88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은 392억 달러 흑자였다.

해관총서는 "전기차, 태양광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강한 수요가 수출 증가 서프라이즈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노동집약적인 완구와 의류 수출도 30% 이상 증가했다. 공급망 상황이 개선된 것도 수출 증가에 한몫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상대국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수출이 35%로 크게 늘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3% 늘어나면서, 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미국과 일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7%, 5% 줄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중국 경제 둔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하지만, 다른 주요국의 수요가 부진한 만큼 이러한 호조세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 이코노미스트는 "3월 수출 증가 서프라이즈는 비교 대상이 된 전년 동월의 수치가 낮아 나타난 기저효과"라며 "작년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중국당국도 향후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관총서는 "외부 환경은 현재도 어렵고 복잡하다"며 "해외 수요 침체와 지정학적 요인은 중국의 무역 동향에 더 큰 과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佛헌법위 '연금개혁 판정' 긴장 고조 프랑스 파리 헌법위원회 청사 앞에서 13일(현지시간) 시민운동가들이 쓰레기통을 쌓아놓고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14일 정부가 지난달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 없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파리/EPA연합뉴스

(공영라디오)

美NPR, 유력 언론기관 첫 트위터 중단

'정부 출연 미디어' 표시 반발에 결단

미국 공영라디오(NPR)가 유력 언론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트위터 사용 중단 방침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PR는 이날 자사 계정에 '정부 출연 미디어'라는 딱지가 붙는 것에 반발해 52개 공식 트위터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트위터는 현재 신뢰도에참고가된다며 보도기관의 계정에 대해 딱지를 붙이고 있다. 트위터는 애초 NPR 계정을 '공영 미디어'라 표시했다가, NPR의 반발에 '정부 출연 미디어'로 수정했다.

NPR는 "공영 미디어는 러시아나 중국 등 정부 선전 매체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바뀐 '정부 출연 미디어' 딱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도 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NPR는 "우리의 연간 예산 중에서 미국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된다"며 "자사는 정부로부터 편집권이 완전히 독립된 민간 비영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NPR가 과거 자사 웹사이트에 '공영라디오에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위선자"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해당 글이 포함된 구글 검색 화면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트위터는 영국 공영방송 BBC에도 '정부 출연 미디어' 딱지를 붙였다가 현재 '공적자금 출연 미디어'로 바꾼 상태. 기존 언론들과의 갈등 속에서 다른 매체들도 NPR의 뒤를 밟는다면, 트위터의 핵심 판매 포인트 중 하나인 뉴스 허브 역할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육성에 역량 결집해야”

글로벌 격차 줄이려면

국내 반도체 업계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수준과 격차를 줄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유일한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메모리에 집중하는 사이 인공지능 등 다른 산업이 발전하면서 시스템반도체의 중요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현재 IP(설계자산) 등 기초 자산이 매우 약해 글로벌 수준으로 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은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경쟁 열위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인력 모든 분야에서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정호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현재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시장을 미국이 70%가량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과 IP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서균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사무총장도 “지난 10년 동안 국내 팹리스 기업이 많이 사라져 국내에 100여 개 정도 남은 상황”이라며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위한 인력 풀도 상당히 빈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는 구

메모리 중심 K-반도체 산업 시스템 반도체 이제 걸음마 팹리스 기술·고객사 확보 관건

정부, 10년 이상 내다보고 민간 함께 인력 양성 나서야

글,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를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로부터 끌어오기 위한 공정 개발이 요구됐다.

김 교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신뢰도 탓에 팹리스를 하지 않는 TSMC에 주요 고객사들의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2나노미터(nm), 3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앞서

나가 물량을 최대한 끌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시스템반도체 중에서도 투자 전략 분야를 정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챗GPT 열풍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고되는 AI(인공지능)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444억 달러(약 57조 원)에서 2026년 861억 달러(약 112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시스템반도체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AI 반도체가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 교수는 “반도체는 선제 투자가 중요한 만큼 정부가 즉흥적인 투자 지원이 아닌 세심한 전략을 통해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며 “최근 챗GPT 등으로 우리에게도 새롭게 기회가 열린 AI 반도체에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 양성도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김 교수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나서서 시스템반도체 인력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팹리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얼마나 양성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수 기자 citizen@

포스코인터, 친환경 종합사 도약... “2030년 시총 23兆”

통합법인 성장전략·비전 발표

양적 성장 기반 질적 도약 추진 에너지·철강·식량·신사업 확대 최정우 회장 ‘業의 진화’ 주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필두로 철강·식량·신사업 등 네 가지 사업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2030년까지 시가총액 23조 원 수준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포스코에너지 통합 후 처음으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는 성장전략과 비전을 발표했다.

‘그린 에너지 & 글로벌 비즈니스 파ioni어(Pioneer)’라는 새로운 비전인 아래 약 3조 8000억 원의 현 시가총액을 2030년까지 23조 원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새로운 비전의 핵심 키워드는 GREEN(그린)이다. 친환경이라는 불변의 가치를 토대로 3대 핵심사업의 밸류체인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신사업을 통해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첨병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에너지 사업을 ‘그룹의 제3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미얀마,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추가로 광구를 개발해 2022년 1.6Tcf(천억 가스계량단위, 조입방피트) 수준의 매장량을 2030년까지 2.5Tcf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터미널 사업은 2030년까지 314만k로 현행 73만k 대비 4배 이상 확장하고 집단에너지사업도 추진한다.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신안 육상 풍력발전이 이어 2027년까지 신규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가스전과 연계한 CCS 사업 등으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철강 부문은 친환경 산업 수요를 선도

하는 철강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 나아간다. 친환경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2022년 181만 톤 수준의 친환경 연계 철강재 판매량을 2030년에는 39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시킨다. 친환경 철강 원료와 이차전지소재 조달 능력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용 철강 소재 판매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은 북미, 유럽, 중국 등지에 설립된 해외 공장을 가동해 2030년까지 700만대 이상의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생산판매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와 추진방안도 수립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합병 그 이상의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을 믿는다”며 “탄소중립을 비롯한 그룹의 친환경 사업을 앞서 이끌어주고, 해외 사업의 첨병으로서 그룹의 글로벌화를 진화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한번 완충하면 417km 동급 최장 주행 ‘코나 일렉트릭’ 출시

첨단 안전·편의사양 대거 적용 보조금 적용 3000만원 초중반

현대자동차가 다재다능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이하 코나 일렉트릭)’을 13일 출시했다.

현대차는 신형 코나에 전기차 모델을 먼저 디자인하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하면 내연기관 모델에서 파생해 전기차 모델을 만들어왔다.

코나 일렉트릭은 64.8kWh 배터리를 장착해 국내 산업부 인증 기준으로 417km(롱레인지, 17인치 휠 기준)에 달하는 동급 최고 수준의 1회 충전 주

행가능거리를 갖췄다. 코나 일렉트릭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반의 편의 사양과 첨단 안전 사양을 대거 탑재해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자랑한다.

현대차는 △차량을 항상 최신 사양으로 유지할 수 있는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카페와 연동해 실물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e하이패스 기능 등을 기본으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네이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핵심 안전 사양을 전 모델에 기본 탑재했다.

이민재 기자 2mj@

삼성전자 스타트업 양성소 ‘C랩 아웃사이드’ 경북 상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비전’을 담은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3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랩 아웃사이드 경북’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랩 아웃사이드 경북’은 경북도가 삼성전자의 외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경북 경산시 소재 영남대학교 내에 신규 조성한 공간이다. 경북도와 삼성전자는 이곳을 지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대구, 3월 광주에 이어 이날 경북에 ‘C랩 아웃사이드’ 프로그램을 연달아 도입하며 지역 내 창업 생태계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삼성전자가 13일 경북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영남대에 개소한 ‘C랩 아웃사이드 경북’ 사무실 모습. 사진제공 삼성전자

로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창업 생태계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148개의 우수한 경북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했다.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은 이들 기업은 매출 3000억 원, 투자 유치 1400억 원, 신규 고용 1700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경북도와 영남대는 스타트업들의 업무공간을 제공한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성장 가능성 큰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C랩을 통해 지역에서 발굴, 보육한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장효진 기자 js62@

LG화학,美지보와 ‘바이오 플라스틱’ 맞손

바이오 프로필렌 상업화 공동연구

LG화학이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사업 확대에 나선다.

LG화학은 북미 친환경 연료전문업체 지보(Gevo)와 2026년까지 바이오 프로필렌(Propylene)을 상업화하기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보는 식물성 기반의 다양한 원료로 지속가능항공유(SAF)와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다.

지보에서 바이오에탄올(Bio-Ethanol)로 프로필렌(Propylene)을 만드는 기술을 제공하면 LG화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공장구축을 통해 상업화에 나선다.

현재 옥수수과 사탕수수 등에서 발효 생산된 바이오 에탄올로 에틸렌(Ethylene)을 만드는 기술은 상업화돼 있지만, 바이오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ETO(Ethanol to Olefin) 기술을 상업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오 프로필렌이 개발되면 LG화학은 바닷재, 기저귀, 자동차 내외장재 등을 만드는 고객사에 100% 바이오 기반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기존 제품보다 90% 이상 탄소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노바연구소(Nova Institute)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 원료 기반 플라스틱 생산 규모는 450만 톤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동욱 기자 toto@

중소 적합업종 12년... 매출·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지정 3년 뒤 매출 소폭 늘다
기간 종료되면 효과 사라져
자산 증대 無... 실효성 논란
"대·중소 자율적 갈등 해소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도입된 지 12년 가까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3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에는 기여하지만 기간 종료 후 성장의 지속성이 낮고,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맡은 노용환 서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영업이익률 변화 (단위: %)

	전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집단	비교집단	참여집단	비교집단	참여집단	비교집단
1년 후	2.07	-0.51	1.16	-1.8	7.53	6.68
2년 후	9.34	8.66	8.29	0.35	17.02	13.67
3년 후	11.1	4.12	8.92	0.17	25.48	6.71
4년 후	17.32	14.44	16.33	0.74	27.71	5.25
5년 후	11.47	8.72	10.64	0.4	18.71	7.9

* 출처: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자료

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의 매출은 3년 후 4.43% 증가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가 3년밖에 가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산 역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5년까지는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효과가 없었다. 영업이익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늘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수

준은 아니었다. 지정 후 4년째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가 이후 점차 줄었다.

부가가치 순생산성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3년까지 업체 평균 7.2% 늘었지만 이후에는 감소했다. 그마저도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생산성 효과가 없었다.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업의 특성상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한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져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적합업종이 단기간에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긴 관점에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매출·생산성 증대 효과도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산과 생산성이 증가해 투자할 여력이 생겨야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경쟁력이 생기지만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효성 논란은 제도 도입 이후 계속돼 왔다.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소작업 임대업',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 '대리운전업' 3개다.

논란은 과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종에서 소비자 불만이 쌓이면서 시작됐다.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6년간 보호받은 중고차판매업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허위·미끼 매출 과다, 성능 상태 점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합업종 지정을 주관하는 동반위는 제도 도입 이후 생계형 업종들이 그나마 한 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으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한 듯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복지제도'의 측면에서 다뤄지는 만큼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점차 범위를 좁혀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적합업종이 됐다고 해당 산업에 있던 기존 기업을 퇴출시키는 강한 조치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보호 정책인 만큼 한 순간에 폐지하면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반위 관계자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적합업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기 기자 sunrise@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온라인 수출' 中企, 아마존 등 입점 뒷받침

중기부, 100곳에 1억씩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집중 지원을 본격화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 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수출은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해외 소비자와 거래가 가능한 데다 적은 리스크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기회로 인식된다.

작년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은 7억1500만 달러, 온라인 수출기업 수는 3815개 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실적과 대비해 수출액은 약 8.6배, 수출기업수는 약 5.7배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수출에 대한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된 채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프로그램 간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 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최종 100개 사를 선정해 글로벌소핑몰 입

점, 마케팅, 물류 등 최대 1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아마존·쇼피·타오바오 등 글로벌 소핑몰 입점·판매를 위한 현지어 상품페이지 제작 △K-상품 기획전 등 마케팅, 고객 대응 및 배송 대행 △타깃 수출국가의 문화, 소비 트렌드 등을 반영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현지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및 SNS 활용 마케팅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풀필먼트 지원 및 물류비 상시할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수출경쟁력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온라인몰을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정부의 이번 모집에는 중소기업 566개사가 지원해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100개사가 선정됐다. 조립식 절제 가구를 판매하는 스피드랙을 비롯해 흡골프 시뮬레이터용 스윙센서와 휴대폰 앱을 개발해 인정받은 파이네트웍스, 차량·가정용 디퓨저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기부의 브랜드K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코코도르 등이다.

이번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지 못한 중소기업은 글로벌플랫폼 입점, 물류 지원 등 온라인 수출 지원 개별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아이엠, 소울에너지와 'RE100' MOU

아이엠이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관련 솔루션 사업 진출을 위해 소울에너지와 협력한다.

아이엠은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소울에너지와 RE100 및 폐기물 처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울에너지는 국내 태양광 O&M(유지보수관리) 기업으로 사회적·환경적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계 최고 권위의 비록(B-Corporation) 인증을 획득했다. 소

울에너지는 최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국내의 금융, EPC(설계·조달·시공)를 도입해 2GW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아이엠은 소울에너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RE100 O&M 솔루션을 받게 된다. 아이엠은 자원회수 SRP(고형폐기물 연료) 기술을 통한 폐기물 처리 솔루션과 소울에너지로부터 제공받을 O&M 솔루션을 기업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대기업에 다 뺏길라”... 중소알뜰폰, 피눈물 나는 ‘0원 경쟁’

알뜰폰 시장이 ‘한푼이라도 아끼자’라는 고물가 국면에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가성비를 내세운 알뜰폰이 소비자 선택을 받는데 성공하자, 사업자 간의 출혈 경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은행권의 시장 진출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이통3사와 막강한 자본력과 영업망 갖춘 은행권이 합세하면서 향후 알뜰폰 시장 생태계의 지각변동까지 예고됐다. 당장은 경쟁 활성화로 가계 통신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0원 요금제’ 출혈경쟁 서막 올렸다 = 13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알뜰폰 요금제 비교 사이트 ‘알뜰폰허브’에 따르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 7곳은 월 납부총액 ‘0원’인 LTE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7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요금을 추가 할인해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다. 월 1~15GB를 제공하고, 일부 사업자는 50GB를 추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도 선보였다. 금융사들의 진입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사업자들의 위

이통3사 이어 금융권까지 균형 막강한 자본력·영업망 앞세워 매출 점유율 이미 절반 훌쩍 넘겨 ‘무료 요금제’로 가입자 지키기 업계 “무분별한 진입허용 안돼 장기적 상생 방안 마련해달라”

기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돼 금융사들이 별도 허가, 신고 없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앱을 통해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던 금융사들이 유력한 진출 후보로 거론된다.

시장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가요금제 출시로 먼저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향후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들의 진입이 본격화되면 과감한 요금 할인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관점에서 시장 확대와 통신 비용



할인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권 진입은) 경쟁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MNO) 경쟁 활성화를 위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도 키우고 소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은행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은행 지점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 등 다른 곳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이 (알뜰폰 시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점유율 반수 넘겨-중소사업

자고사 위기감 = 시장에서는 과도한 출혈 경쟁의 부작용을 예고한다. 마케팅 비용 증가 부담을 이기지 못한 중소기업자들은 생존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사업자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싸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 뿌러놓고 건너가는 것은 은행들이 다 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자금에서 밀린 중소기업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알뜰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시장 정리가 끝나고 나면 대기업의 과점 문제

가 불거지고, 일시적인 요금 할인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다시 비싼 요금제를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미 알뜰폰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은 반수를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완주 의원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 전체매출 대비 이통3사 계열사와 리브엠의 매출은 2020년 58%, 2021년 59%를 기록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2021년 1000만 회선을 넘겼지만, 수익이 높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올해 2월 기준 751만 명 수준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이통3사 계열사의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점유율 제한과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제공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통3사의 정확한 정보 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의 요금 인하 효과만 보고 무분별하게 시장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ISMS 인증만으론 부족... 거래소 해킹 안전판 마련 서둘러야”



서울 강남구 지닥 사무실의 모습. 뉴스

가상자산 거래소코인을 노린 해킹 범죄가 잇따르자, 사후 조치와 별개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보안 기준을 마련했지만, 최근 발생한 지닥 사례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닥이 해킹 당한 고객 자산 전액 보전을 발표하며 사후 조치에 나섰다. 지닥 측은 “회원의 일체 자산은 100% 전액 충당된다”며 “다만 입출금 서비스의 충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킹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영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ISMS 인증을 받으면 일단 넘어가는 분

빗썸·업비트 대형거래소도 피해 위험 크지만 피해보험 가입 안돼 “외부수탁·콜드월렛 비중 확대 등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해야” 목소리

위기”라며 “거래소 해킹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콜드월렛 비중 강화 혹은 거래소 물량 외부업체 수탁 등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형 거래소로 일컬어지는 업비트와 빗썸도 해킹 이력이 있다. 특히, 업비트는 2019년 ‘핫월렛(Hot wallet)’에 보관 중인 58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당시 업비트는 회사 자산으로 피해 금액을 충당했다. 거래소는 온라인 지갑 형태인 핫월렛과 오프라인 지갑 형태인 하드월렛에 물량을 보관한다. 핫월렛은 온라인과 연결된 가

렛비중을 높이거나 외부업체 수탁 등의 추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콜드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이다. 보안성이 높은 만큼 자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지만, 거래 효율성이 낮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2021년 ‘DBS 디지털 거래소’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교환, 수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은 예전부터 예치 업무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가상자산 예치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며 “많은 물량을 보유 중인 거래소들이 은행에 물량을 맡길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완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업무 영위 허용 검토’를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보험 인프라도 없는 상황이다.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책정이 어렵고,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할 경우 투자자 보호도 어렵다. 업비트의 경우 탈취당한 자산을 충당할 만큼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가능했다. 총당 비용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가 해킹당할 경우 투자금 보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코인레이는 2018년 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코인레이는 자체 발행 가상자산으로 보상 계획을 세웠지만, 고객 예치자산을 반환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만으로 해킹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 보안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산업안전·보건·환경〉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SHE’ 포함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SK(주)C&C는 ESG 종합 진단 플랫폼 ‘클릭(Click) ESG’를 통해 산업현장 안전·보건·환경(SHE) 진단 및 점검에 특화된 ‘디지털 SH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클릭 ESG’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산업별 경영 수준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ESG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 맞춤형 ESG 플랫폼 서비스다. 금속·석유·화학 등 국내 대형 화학 기업을 비롯해, 서울, 충남, 사천 등 지역상공회의소 회원사인 중견·중소 수출기업들도 클릭 ESG를 활용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클릭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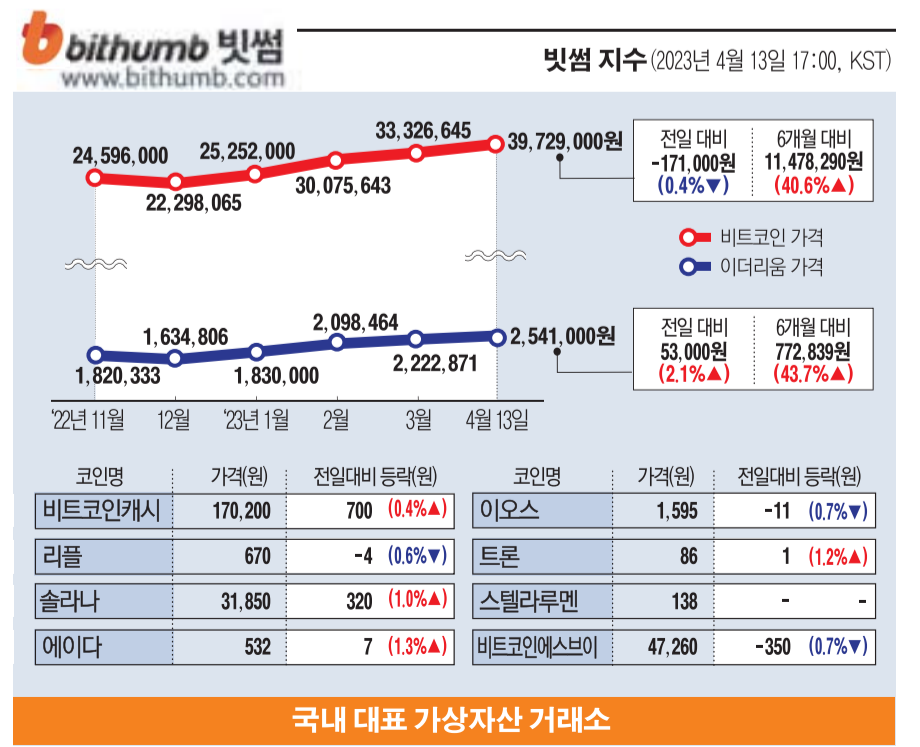
이용 고객의 의견을 받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보건환경 법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SK(주)C&C는 산업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SK E&S에 구축한 종합 안전 관리 플랫폼 ‘SHEM(SHE Management)’의 주요 기능을 ‘클릭 ESG’에 모두 담았다. 산업 현장 근로자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도 탑재했다. 작업 환경 분석 및 안전 작업 모니터링을 비롯해 △일반·특수 건강검진 관리 △안전교육 및 훈련 △사고 관리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관리기능도 제공해 중대재해 전조 단계부터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다.

오선관 ICT혁신그룹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SHE 체계 확립만으로도 각종 산업안전 규제 및 법규 준수 이행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작업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에 발맞춰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은 화학, 건설, 운송 분야로 디지털 SHE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자이 브랜드’ 달고... 단독주택 나온다



GS건설의 목조모듈러주택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국내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모듈러주택은 구조체를 공장에서 만든 후 현장 조립해 빠르면 2개월 내 공급 가능하다. 사진제공 GS건설

‘자이가이스트’ 시장 본격 진출

GS건설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국내 단독주택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자이 브랜드의 프리미엄을 단독주택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품질과 모듈러 주택의 편의성을 무기로 시장을 이끌어갈 생각이다.

GS건설은 13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조모듈러주택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B2C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는 충남 당진에 위치한 목조모듈러 생산 공장 내에 주력 모델인 35평형과 54평형 2가지 타입의 샘플하우스도 마련했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지난 2020년 100%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프리패브 공법을 통한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다.

GS건설의 ‘모듈러 주택’ 자회사 홈페이지 열고 본격 B2C 영업

고객 취향 맞게 50개 모듈 조합 현장 공정 ‘최소화’ 2개월내 공급

GS건설측은 “자이가이스트가 공급하는 모듈러주택은 구조체를 공장에서 생산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장 공정을 최소화해 빠르면 2개월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GS건설 자이의 설계와 기술력,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적용돼 단독주택 수요자도 자이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이가이스트는 모듈 전문 설계사인 자이가이스트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지난 2년간 모듈러기술 연구와 평면 개

발을 통해 50여 개의 표준 모듈을 준비했다. 일반 건축주는 토지 형상과 내부 평면 구성에 따라 모듈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설계하게 되고 설계 완료 후 주택 건립이 진행된다.

이날 자이가이스트는 표준 모델 조합 중 대표적인 시제품과 고객이 모듈을 조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자이가이스트 컨피규레이터’를 공개했다. 자이가이스트 컨피규레이터는 자이가이스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 가능한데 이를 통해 미리 공간감과 평면을 살펴볼 수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9평형 단일 모듈로 구성된 소형주택 ADU도 선보였다. ADU (Attachable Dwelling Unit)는 추가 모듈을 결합해 층층 가능한 소형주택 유닛이다. 건축비 넘버하지 않은 소비자 등을 위해 개발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국내 단독주택 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균

일하지 않은 품질과 낮은 AS 수준, 불합리한 가격 체계 등 소비자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다”며 “균일한 품질과 합리적 가격의 상품을 제시해 단독주택시장을 확장·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프리패브 관련 새로운 공법과 기술에 대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허윤홍 사장이 이끌고 있는 GS건설 프리패브 사업그룹은 지난해 약 6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신사업부문을 주도하고 있다. 2020년 인수한 폴란드 모듈러 주택 전문회사 ‘단우드’, 영국 스틸 모듈러 전문회사 ‘엘리먼트 유립’과 2020년 설립한 pc 전문 자회사 GPC의 성과에 힘입은 것이다. 올해는 자이가이스트의 단독주택 B2C 사업 본격화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보규 기자 jbk@

서울 아파트 낙폭 다시 줄어 집값 회복 ‘불씨’ 살아나나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 2주 연속 같은 수준의 하락 폭을 이어가면서 집값 낙폭 둔화세가 주춤했지만 이번 주 낙폭을 줄이면서 집값 회복세에 재차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10일 기준)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0.13%)보다 0.02%포인트(p) 낙폭을 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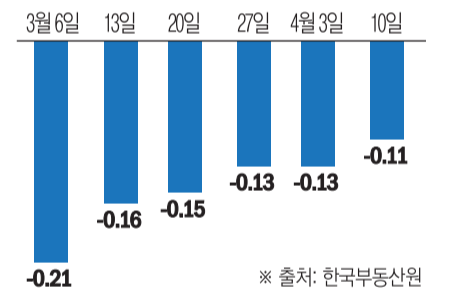
서울 아파트값은 2월 6일 이후 7주 연속 하락 폭을 줄여오다 최근 2주 연속 같은 수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추가 낙폭 만회 기대감이 한풀 꺾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 재차 낙폭 만회에 성공하면서 집값 회복세의 불씨를 살리는 모양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강남지역의 강세가 도드라졌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가운데 송파구는 이번 주 0.02%로 전주(-0.01%) 대비 0.03%p 올랐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번 주 모두 0.01% 하락을 기록해 각각 전주 대비 0.03%p와 0.09%p 올랐다.

강북지역에선 용산구(-0.05%)가 전주(-0.09%)보다 0.04%p 올라 3주 연속 집값 하락 둔화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이번 주 0.17% 하락해 전주(-0.22%) 대비 0.05%p 하락 폭을 만회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아파트값 전주 대비 변동률 (단위: %)



통권 100호 기념 특집호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BRAVO SPECIAL 젊어진 중년들, 후기청년 세대

- PART 1. 120세 시대 새로운 중년의 시작 '후기청년'
- PART 2. 청년과 중년 사이 낀 세대를 말하다
- PART 3. "나는 아직 청년" 젊어진 중장년 '후기청년'
- PART 4. 후기청년 "마음은 젊은이, 소비는 큰손"
- PART 5. "살 날은 길고 돈은 없고" 장수 두려운 세대
- PART 6. 후기청년 둘의 대담, 후기
- PART 7. 누구나 겪는 후기청년기 150세 인생을 계획하라



100호 특집 인터뷰



트로트 가수 정다경 "트로트 가수, 중장년 팬 휘어잡는 여유로움 필요"

100호 특집 좌담회



귀농귀촌 귀농이 곧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100호 특집 기고



보험사 CSM 산출 제각각... 금융당국 '비교 표준' 만든다

〈보험계약서비스마진〉

새 회계기준 IFRS17의 핵심 지표 DB손보 CSM 12.7조... 업계 1위 생보 빅3 교보, 삼성·한화 두배 차 보험사마다 기준 달라 비교 무의미 "연말까지 비교 가능한 수치 개발"

새 회계기준인 IFRS17의 핵심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규모가 발표된 가운데, 각 사마다 제각각인 수치에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수치 개발을 준비 중에 있지만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SM이 공개되면서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시장 예상치를 지나치게 웃돌거나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들을 토대로 향후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앞으로 예정된 미실현 이익을 추정할 수 있어 향후 보험사들의 미래 가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고착화됐던 보험업계 순위가 CSM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동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석이 분분하다. DB손해보험의 지난해 기준 CSM은 12조7614억 원으로 삼성화재(12조2013억 원)를 누르고 손해보험업계 1위를 차지했다. DB손해보험은 업계 3위권 회사다. 생명보험업계 '빅3'인 교보생명의 CSM도 삼성·한화생명과 두 배 이상 격차가 나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교보생명의 지난해 기준

지난해 보험사 CSM 규모 (단위: 억원)



CSM 규모는 4조5910억 원으로 발표됐는데 삼성생명(10조3745억 원), 한화생명(9조5587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현재 적자 상태인 MG손해보험은 지난해 CSM이 8000억 원이 넘는다고 발표해 일각에선 계리적 가정에 의해 산출되는 CSM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은 '현재

CSM이 비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수치냐'는 것이다. 보험사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산출해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끼리도 서로 수치가 맞는 건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라며 "IFRS17 제도 초기에 CSM을 많이 잡아놓으면 추후 큰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현재 CSM 규모를 작게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타사 대비 뒤쳐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CSM을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CSM일 뿐이며, 아직 확정된 숫자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업계 혼란을 인지하고 수치 점검과 비교

가능성이 높은 수치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회사들이 발표하는 CSM 숫자로 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며 "연말까지 비교 가능한 유익한 수치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IFRS17 기준 자체가 국제회계기준에서 나온 기준이라 모든 보험 기준을 완벽하게 커버할 순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 초기여서 보험사들도 혼란스러운데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을 가려낼 때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치 점검에 나서고, 비교할 수 있는 CSM 수치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은행,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 없이 점포 문 못닫는다”

은행권 경영·영업·제도 개선 TF 점포폐쇄, 고령층엔 '금융소외' 고객의견 수렴 등 사전평가 강화 우체국 창구 제휴 등 서비스 연계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 점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 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5차 실무자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

화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번 '내실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내실화방안'에 따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 절차가 강화된다. 그동안 '점포폐쇄 공동절차'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

적이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포폐쇄 결정 이전에 점포 이용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나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큰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나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금융소비자가 겪는 불편·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 한해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TM을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때는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알권리도 확대된다. 그간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 와 사유,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 등도 추

가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연 1회 실시하는 점포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신설 또는 폐쇄 점포수뿐만 아니라 폐쇄일자, 폐쇄사유와 대체수단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점포폐쇄 정보를 금융소비자가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점포 신설·폐쇄현황 비교 정보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점포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내실화방안'을 통해 마련된 개선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재영 기자 lry0403@



이재연(왼쪽부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취약계층 소액생계비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은행연합회

5년간 3.65% 확정이율... 푸본현대생명 'MAX 연금보험' 출시

푸본현대생명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무배당)'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MAX 연금보험 하이브리드(무)는 가입 후 5년까지는 확정이율 3.65%를 적용하고, 가입 후 5년 초과시부터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다.

연금상품을 오래 유지할수록 계약자적립액에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로 적립해

더 많은 금액의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유지보너스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의 계약해당일에 기본보험료의 3.0%를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된다.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기본보험료의 6.0%를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돼 총 2번의 장기유지보너스가 적립된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수료 없이 연 12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추가납입과 지정인출 서비스를 통해, 필요자금을 유연하게 자금운용할 수 있다.

500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일시납 상품으로, 0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지급개시는 45세부터 90세까지다.

서지연 기자 sjy@

서금원·신복위에 2200억... 은행, 취약층 금융 지원

은행연합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계층 소액생계비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연합회가 2월 15일 발표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금원에 3년간 1500억 원, 신복위에 4년간 700억 원을 출연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서금원에 올해 5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오늘 협약식은 은행권이 준비한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KB금융, 법률 자문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강화

KB금융그룹은 법무법인 세종·태평양과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 고객에게 법률 분야의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제공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는 개인·가족·사업의 주요 자산에 대한 생애주기 및 사업 운영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기업승계 △인수합병(M&A) △유언대응신탁 등

자산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향후 KB금융은 세무 신고를 지원하는 회계법인, 국내외 부동산 매입·매각과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해외부동산법인, 미국 납세 업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세무법인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KB 골드&와이즈 더 퍼스트 고객에게 최상의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영 기자 lry0403@

family Office 서비스(법률분야) 업무협약식



왕현정(왼쪽부터) KB증권 TAX솔루션부 부장, 조영욱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부장, 최재영 KB금융지주 WM/연금총괄(부행장),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민정 KB증권 변호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삼성 없는 반도체 ETF... 잘 나가는 이유는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ETF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전자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는 총 6개다.

순자산총액별(전일 기준)로 살펴보면 △KODEX 반도체(3265억원) △TIGER Fn 반도체 TOP10(2075억 원) △TIGER 반도체(1779억 원) △KBSTAR 비메모리 반도체액티브(655억 원) △KODEX Fn 시스템 반도체(167억 원) △HANARO Fn K-반도체(118억 원) 순이다.

순자산 1위인 KODEX 반도체는 연초 이후 31.79%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15.10%)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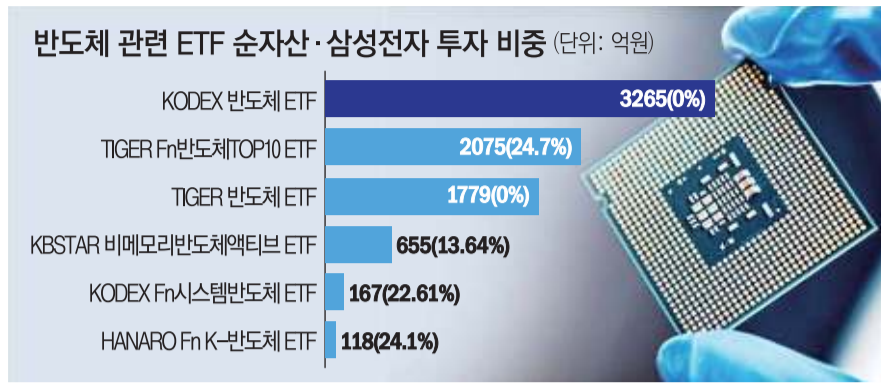
순자산 선두 KODEX 반도체
올 32% 올랐지만 삼성 비중 '0'

KRX 섹터는 깃스 분류 추종
삼성, 가전·스마트폰 등 다양
반도체 섹터로만 보기 어려워

도체주 훈풍에 힘입어 개인 투자자들도 KODEX 반도체를 지난 한 달간 약 178억 원 순매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KRX 반도체 지수가 주요 미국 반도체 지수를 넘어서며 국내 반도체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최근 삼성전자 효과로 KODEX 반도체에 빠르게 자금이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KODEX 반도체 투자 구성 종목에는 삼성전자 빠져 있다. 해당 ETF의 PDF



(Portfolio Deposit File)를 보면 SK하이닉스가 17.67%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SK스퀘어(11.96%), DB하이텍(8.49%), 리노공업(4.33%), 원익IPO(3.50%), LX세미콘(3.43%) 등이 뒤를 이었다.

KODEX 반도체와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TIGER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다. 두 상품은 한국거래소가 산출한 'KRX 반도체 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종하는데, 해

당 지수에 삼성전자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국내 반도체 기업 전반에 투자하는 TIGER Fn 반도체 TOP10과 HANARO Fn K-반도체는 삼성전자를 각각 24.70%, 24.10% 비중으로 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를 비롯해 가전, 스마트폰 등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게 거래소 측의 입장이다. KRX

섹터 지수는 S&P와 MSCI가 관리하는 GICS(깃스)라는 글로벌 산업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어 자의적으로 섹터를 조정할 수도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KRX 반도체 지수는 깃스 1단계 정보기술, 깃스 2단계인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로 나뉜다. 정보기술 섹터에는 반도체가 포함돼 있지 않고, 삼성전자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어 반도체 장비로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반도체 업황에 좌우되는 측면이 큰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섹터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본다. 투자자들의 수요도 고려한 지수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viajaporn@
정희인 기자 hihello@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평가시장 세미나'

"ESG 신뢰성 제고 평가기관 정보 공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가기관별 결과 상이한 경우 신뢰성 약화돼 시장 발전 저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ESG 평가기관별 평가 결과가 다른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세미나' 참석해 "ESG 평가기관별 평가 결과가 상이해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ESG 평가 등급의 과도한 차이는 ESG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인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가기관별로 평가지표, 가중치 등

평가모델이 서로 달라서 평가결과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과의 과도한 차이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평가 결과의 차이는 ESG 평가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과 결합될 경우 ESG 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평가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IOSCO,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ESG 평가기관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 ESG 평가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평가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계열회사 업무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SG 평가정보를 투자자가 믿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ESG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ESG 평가기관들 스스로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시장 뿐만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2025년부터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공시 의무화를 통한 정보의 확산은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해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ESG 평가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리부담·부동산 경기 악화에 기업 유동화증권 '순상환 전환'

지난주 만기 회사채 4.9兆 규모 발행액은 1.9兆 그쳐 3兆 순상환

기업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기초로 발행했던 유동화증권(ABCP) 빚을 갚는데 매달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4월 3~7일) 4조9141억 원 규모의 ABCP 만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발행 물량은 1조8837억 원에 그쳐 총 3조303억 원이 순상환됐다. 이는 지난 1월 20일(1조7294억 원) 이후 최저 발행액이다.

만기가 된 회사채를 갚은 금액보다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금액이 더 적어졌다는 뜻이다.

유통금리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6일 신한은행(A1등급)이 신용보강한 선천제이차의 PF ABCP는 연 9.50% 금리에 유통됐다.

PF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A1)도 마찬가지다. 3월 유통금리는 5.23%로 지난해 9월(연 3.83%) 대비 약 140bp(1bp=0.01%포인트) 높다.

유통이 성사되더라도 평소보다 2~3배 높은 수준의 금리로 매각이 이뤄지다보니

시장에서는 차환만기 물량을 상환으로 대응하고 있다.

등급 별로 보면 A1 등급이 5조1875억 원이 발행된 가운데 7조3085억 원이 상환돼 2조1210억 원의 순상환이 이뤄졌고, A2+등급에서는 9237억 원이 발행했지만 만기액이 웃돌면서 1조176억 원이 상환됐다.

흥성이나 이시스 신용평가 SF 본부실장은 "결국은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부동산 분양시장이 활성화돼야 만기연장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 PF 유동화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PF 유동화시장은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 전까지는 기존 사업 관련 만기 연장을 위한 차환발행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PF ABSTB·ABCP 발행잔액은 36조17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말 대비 8.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련 사업 건수도 1341건에서 1179건으로 6.8%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각각 34조7000억 원, 1179건으로 추가 감소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공모주는 상장일에 팔아라? 1개월 뒤에도 수익률 좋았다

올해 상장한 14개사 13일 주가
상장일 증가 대비 16.3% 수익

공모주는 상장 직후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인식과 달리 올해 공모주 중 절반이 상장 후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첫날 증가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 13일까지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한 공모주 14곳의 상장 첫날 증가 대비 수익률은 평균 1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인 종목은 1월 27

일 상장한 미래반도체로, 13일 2만9000원으로 상장 첫날 증가 1만5600원 대비 85.9% 상승했다. 미래반도체는 상장일 1만5600원으로 '따상(시초가 2배 형성 뒤 상환가)'을 달성했고, 이달 7일 최고가 3만50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저조한 공모주는 2월 20일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이노진으로, 상장 첫날 7800원을 기록했으나 13일 3930원으로 49.6% 하락했다. 이노진 역시 상장 첫날 따라서 거래를 마감한 종목이다.

이달 12일 기준 상장 첫날 증가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상장사는 미래반도체를 비롯해 굼비(84.6%), 티이엠씨(63.5%), 제이오(60.9%), 금양그린파워(33.6%) 한주라이트메탈(33.3%), 나노팀(6.7%) 등 7곳이었다.

반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상장사는 이노진을 비롯해 샌즈랩(-36.9%), 삼기이브이(-29.8%), 스튜디오미르(-16.4%), 오브젠(-3.5%) 등을 포함해 7곳이었다.

박세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주 위주 종목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하반기와 대조되는 현상"이라며 "주식시장 변동성 및 매크로 환경이 완화됐고, 연초 AI와 로보틱스, 2차전지 테마 랠리가 이어지면서 공모주도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상장일 가격제한폭 공모가 60~400% 확대

6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오는 6월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일 기준 가격 결정방법 개선과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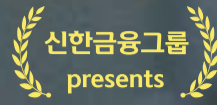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 가격으로 사용한다.

또 기존에는 신규상장 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 가격 대비 ±30%(기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 가격(공모가)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 종목의 기준 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민지 기자 handmin@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영화 같지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정을 위해,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꿈 많은 아들 수찬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는 가족의 성장 실화

아이의 꿈과 부모의 꿈까지 지키는 방과 후 돌봄교실

신한 꿈도담터

맞벌이 가정의 공감 실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선한 세상 이야기

[방과 후 돌봄교실 신한 꿈도담터]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돌봄 교실 사업으로 2018년부터 총 148개소, 46만명의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해 아이의 성장을 돕고, 성장하는 아이를 보며 부모님은 안심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감독 영화 감상하기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문 여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술·담배 통과여부 시끌

17일부터 시범운영

국내에서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들어서는 가운데 인도 대상 품목에 주류와 담배를 포함하는 안을 두고 정부와 중소·중견 면세업체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중견 면세업체는 주류·담배가 포함될 경우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한 뒤 향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관세청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시범운영된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건 처음이다. 시범운영 사업자는

부산항 국제터미널에 도입되지만 업계 “경쟁력 떨어져 매출 타격” 정부 “당분간 품목 제한 없을 것” 중소업체 목소리 경청하며 결정

한국면세점협회이며 시범운영 기간은 올해까지다.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하기 전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맡겨놓고 해외 일정을 끝낸 뒤 입국할 때 면세품을 찾는 곳이다.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편리한 만큼 면세업계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꼽혀왔다.

2019년 관세법과 2020년 시행령 개정

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중소·중견업체 타격 우려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본격 시행됐다. 다만 관세청은 중소·중견 면세업체가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없는 부산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운영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주류·담배를 인도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안을 두고 정부와 중소·중견 면세업체 간 갈등은 여전히 속세로 남아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업체는 인도장 인도 대상 품목에 주류·담배가 포함될 경우 입국장 면세점 경

쟁력을 떨어뜨려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주류·담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빠 나가는 입국장 특성상 면세점에서 화장품, 식품보다 해외 현지에서 사지 못한 주류와 담배를 사는데 일반적이라는 게 중소·중견 면세업체의 중론이다.

현재 경북공면세점(구 엔타스듀티프리)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그랜드면세점은 김포공항과 대구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입국장 인도장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관세청에 전달한 바 있다.

중소·중견면세업체 관계자는 “시설 투자비, 인건비, 공항수수료 등을 내가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도장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인도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보다 싸게 팔아도 충분히 이윤이 남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입국장 면세점) 운영하지 말라는 것일랑 같다”고 토로했다.

당초 관세청과 면세업계 등으로 구성된 면세산업발전협의회에서 주류·담배 품목을 1년간 인도 대상에서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끝내 결정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입국장 인도장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확대 여부 및 향후 시행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결정했다”며 “우선 운영되는 상황을 보고 운영 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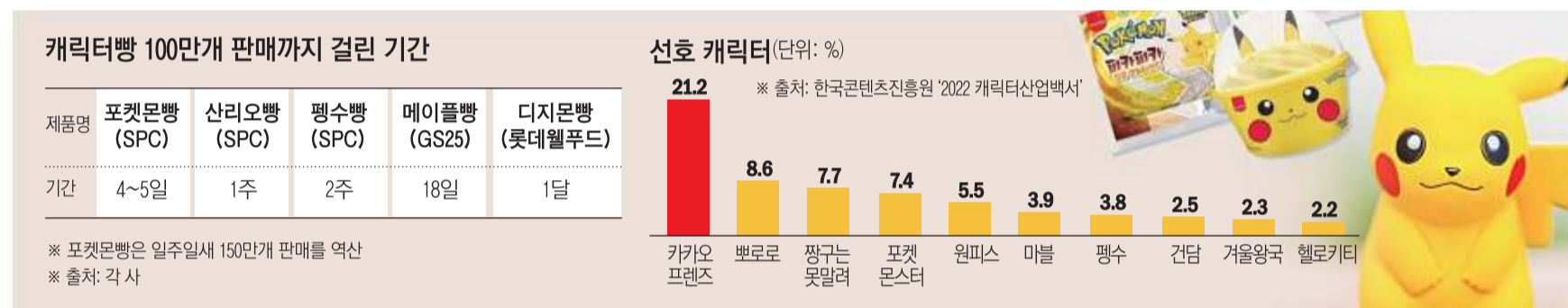
캐릭터 신드롬은 한철? 포켓몬빵 못 넘은 산리오빵

1주일 만에 판매량 100만개 돌파 포켓몬 150만개... 3분의 2 수준 “타 라인업, 포켓몬보다 인지도↓ 쉽게 질리는 젊은층 새전략 필요”

포켓몬 열기가 예전만 못해지면서 식품업체가 ‘제2의 포켓몬’을 찾느라 분주하다. ‘핑수빵’과 ‘포켓몬빵’으로 재미를 봤던 SPC는 ‘산리오’와 협업 제품을 출시했다. 편의점들은 짱구와 브로로를 활용한 상품을 내놨다. 하지만 대다수 캐릭터 상품이 이미 출시된 바 있어 마케팅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SPC삼립이 이달 초 내놓은 ‘산리오빵’은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다. 작년 출시된 ‘포켓몬빵’이 출시 일주일 만에 150만 개 판매된 것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이지만 이전 히트작 ‘핑수빵’의 100만 개 판매 기간이 2주였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기록이다.

‘산리오빵’은 제품 안에 티부실 102



종을 무작위로 동봉돼 ‘포켓몬빵’의 아성에 도전할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SPC는 배스킨라빈스를 통해서도 ‘마이멜로디’와 ‘쿠로미’의 외모를 형상화한 아이스크림을 4월 이달의 맛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리오 AR(증강현실) 포토카드와 크로스백도 출시했다.

이외에도 CU는 브로로의 북극곰 캐릭터 ‘포비’를 응용한 ‘포비빅빵’을 출시했고, GS25는 ‘짱구 캐리어’를, CU는 짱구 HMR(가정간편식)을 내놨다. 게임 캐릭터도 가세했다. 해태는 ‘맛동산 던전엔파이터 에디션’을, 피자알볼로는 액션 RPG ‘원신’과 협업한 굿즈를

선보였다. 이디야는 부산 부산달맞이집에 로스트아크의 캐릭터 ‘모코코’를 테마로 팝업을 열었다.

캐릭터 협업 제품은 유통업체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마니아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공짜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캐릭터에 열광하는 10~20대가 주 소비층인 편의점이나 제빵업체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전략이다.

작년 2월 SPC가 출시한 ‘포켓몬빵’은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개를 기록하며 흥행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포켓몬 열기는 잦아들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마트에서 ‘포켓

몬빵’을 구하기가 어렵진 않다”라며 “쉽게 싫증내는 젊은 층에 유행하다 보니 새로운 캐릭터 마케팅이 나와야 할 시기”라고 봤다.

식품업체들은 포켓몬 인기를 뛰어넘을 캐릭터 찾기에 나서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인기 캐릭터 제품이 이미 출시된 바 있어 업체는 캐릭터 발굴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캐릭터 10종 중 1위는 카카오프렌즈(21.2%)였고, 브로로(8.6%), 짱구는 못말려(7.7%), 포켓몬스터(7.4%)가 뒤를 이었다. 최근 협업 제품이 늘고 있

는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의 선호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산리오도 헬로키티와 쿠로미 등 여러 캐릭터로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지도에서 포켓몬에 밀린다”며 “경쟁사들이 이미 캐릭터들을 상품화한 적이 있어 새 캐릭터 상품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SPC는 일단 ‘포켓몬빵’의 생산 라인을 유지한 채 ‘산리오빵’ 생산라인을 추가해 반응을 살핀다는 전략이다. 추후 ‘산리오빵’ 흥행 여부에 따라 생산라인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남주현 기자 jooh@

“재밌게, 트렌디하게”... 이유 있는 편의점 ‘컬래버 전략’

소비자 67% “상품 구매의향 있다” 품질·공정적 이미지 확보가 관건

편의점업계의 컬래버레이션 상품 출시가 붐몰을 이루고 있다. 기념일 아이템부터 간편식, 주류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또 컬래버 상품이 소비자 구매 의향을 자극하는데 상당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상품 출시가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편의점 이용 패턴 및 컬래버레이션 상품 관련 U&A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83.9%)이 편의점 컬래버 상품을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기업이 컬래버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최근 3개월 이내 편의점 방문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소비자들은 컬래버 상품을 재미있고(47.6%, 중복응답), 호기심을 자극하며



(44.2%), 색다르고(37.5%), 트렌디한(33.7%) 상품으로 인식하는 등 관심이 컸다. 여성(남성 55.6%, 여성 65.2%)과 2030(20대 68.4%, 30대 65.6%, 40대 58.4%, 50대 49.2%)을 중심으로 컬래버 상품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주로 구매한 컬래버 제품 유형으로는 빙그레 스낵과 오투기 라면 협업 등 동종업계 컬래버(30.9%, 중복응답)와 F&B 브랜드 간 컬래버(28.4%) 상품이 1~2위였고, 콘텐츠 관련(28.1%), 유명인 상품(27.7%)이 뒤를 이었다.

인기이유로는 주로 재미있는 컬래버가 많고(34.7%, 중복응답), SNS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33.9%) 이색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다(31.3%)는 점이 꼽혔다. 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증샷 위주의 체험 소비가 확산하면서 새롭고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관심과 호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10명 중 7명(66.8%)은 앞으로도 컬래버 상품 구매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컬래버 상품을 선택할 것 같고(58.5%), 관심이 없었던 제품이라도 구매하게 만드는 것 같다(54.2%)는 평가도 높았다.

다만 컬래버 상품이라도 품질이 낮으면 소비자들이 찾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87.4%), 오히려 브랜드 로열티 등으로 가격만 비쌀 것 같다(63.0%)는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품질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공정적 이미지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쿠팡,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 롯데 제쳤다

전년비 24계단 오른 74위 롯데쇼핑은 91위로 내려가

쿠팡이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에서 롯데쇼핑을 앞질렀다. 국내 유통기업 중 이마트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글로벌 250대 유통기업’ 리스트에서 제외됐던 신세계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이 13일 공개한 ‘글로벌 유통업 강자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60위)와 쿠팡(74위), 롯데쇼핑(91위), GS리테일(162위), 홈플러스(215위), 신세계백화점(224위) 등 총 6개 기업이 ‘글로벌 250대 유통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엔 2021 회계연도(2021년 7월~2022년 6월)를 기준으로 글로벌 유통기업의 매출액과 트렌드 분석이 담겼다.

쿠팡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쿠팡

은 전년 순위보다 24계단 오른 74위에 자리했다. 쿠팡은 2021년 보고서에 처음 진입한 뒤 2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1위(90.9%)를 차지했다. 올해는 해당 차트에서 3위(9.3%)를 기록했다.

이마트는 60위로 국내 기업 중 가장 순위가 높았고 롯데쇼핑과 GS리테일, 홈플러스는 2020 회계연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2020 회계연도에 250위권 밖으로 밀렸던 신세계는 이번에 재진입했다. 신세계의 전년 대비 유통 매출액 증가율은 33.3%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 명품 보복 소비에 힘입어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매출이 급증한 것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한편 2021년 회계연도 기준 글로벌 유통기업 1위는 월마트(5727억 달러)였고 아마존(2391억 달러), 코스트코(1959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유승호 기자 peter@

“구글, 제3자에 제공한 한국 이용자 정보내역 공개해야”

**구글, 미국가안보국에 정보유출
美법령 따른 비공개 의무 불인정
사유 정당해도 제공 사실 알려야
대법, 파기환송... 공개대상 늘듯**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부분은 구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2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

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라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에서 구글이 이용자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심에서 공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 헌법·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외국 법령을 준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외국 법령이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한·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 등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른 소비자 제

약에는 전속적 재판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사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가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 용역업체 직원이었다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민낯 드러낸 '강남 납치살해' 배후 부부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과 황은희가 13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상원은 이날 경찰서를 나서며 “억울하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은 1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사건 배후로 지목된 두 사람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임신부 있는데도... 집에서 대마 키우고 피운 일당 기소

**대마 텐트·동결건조기 등 갖추고
액상대마 제조... 텔레그램에 판매
檢, 김해 주택·중량구 공장 압색**

검찰이 아파트에서 대마를 전문 재배하고 생산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일당 중에는 집에 임신부가 있는데도 버젓이 범행을 저지른 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3일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제조하고 이를 판매 광고한 A 씨(26)와 B 씨(26), C 씨(38)와 D 씨(37)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대형 대마텐트와 동결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대마 재배·제조 시설

을 갖춘 대마재배·생산공장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곳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동결건조·액상추출 용액 등과 혼합해 액상대마를 제조했다.

이렇게 생산한 액상대마를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재배하고 판매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들은 식재 상태의 대마 5주와 건조된 대마 약 1.2kg을 소지했고 대마를 직접 피우기도 했다.

C 씨와 D 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 2곳에서 대마텐트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26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했고 식재 상태의 대마 13주와 대마 약 580g을 소지했고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다크웹 수사팀'은 두 시설의 추적단서를 포착해 김해 아파트와 서울 중랑구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압수 수색했고 네 사람을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다크웹수사팀은 2018년 설치·운영

됐으나 2021년 1월 수사권조정 이후 해체됐다. 이후 마약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시 복원됐다.

검찰은 추적이 어려운 보안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판매 광고를 단서로 1년 이상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운영된 대마 재배·생산시설 3곳을 적발해 재배·제조사범을 전원 구속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대마 재배·제조·생산시설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까지 뻗어나갔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팀은 서울 중랑구 주거밀집지역에서 외부 감시용 CCTV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며 1년 이상 대마가 재배됐다고 봤다. 특히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김해시 아파트 주거지 2곳에서 대마 재배용 텐트를 설치하고 재배한 대마를 직접 '드랍(던지기)'하는 등 지역공동체에 직접적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봉으로 직원 찢러 장 파열 시켜
대법 ‘범행 너무 잔혹’ 중형 확정**

직원을 막대로 찢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목안에 플라스틱 봉을 찢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

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한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한 씨가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한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송파~위례 잇는 ‘노면전차’ 달린다

**위례트램 착공, 2025년 개통
총 연장 5.4km... 정거장 12곳**

서울 송파구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트램’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위례중앙광장 북측에서 위례트램 건설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위례트램이 2025년 개통하면 1968년 이후 57년 만에 서울에서 노면전차가 부활하게 된다.

이날 착공식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간 협력의 상징성을 고려해 3개 시의 경계 부분인 위례중앙광장에서 진행했다.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현재 하남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도·구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위례트램 노선은 송파구 마천역을 출발해 위례북로를 따라 장지천을 횡단해 위례 트랜зит몰, 위례중앙광장을 거쳐 창곡천을 따라 송파IC 하부를 통과, 북정역(8호선)에 이르는 본선과 창곡천에서 분기되어 남위례역(8호선)으로 연결되는 지선으로 구성된다.

총 연장 5.4km에 정거장 12곳(환승역 3곳), 차량기지 1곳으로 건설된다. 하천을 횡단하는 곳에는 주변 수변공간 및 지

위례신도시 트램 노선도 ※ 출처: 서울시 (2023년 4월 착공 2025년 개통 예정)



형과 어우러지는 교량 2곳도 지어진다.

위례트램 건설로 △서울시와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도시 간 협력과 상생 △무공해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위례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객차 5칸으로 구성된 차량 한 대에는 최대 260명이 탈 수 있다.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 구조로 제작된다.

전선을 없애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원으로 삼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매립형 레일 위를 주행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소음도 최소화된다.

시는 위례트램 건설 전 과정에 3차원 모델링 검증 기법(BIM)을 도입하고, 스마트 통합관제 등 첨단 안전기술을 적용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은평 기자 pepe@



영화 '존 워 4' 박스오피스 1위

액션 종결자 존 워가 돌아왔다. 12일 국내 개봉 즉시 박스오피스 1위로 우뚝 올라선 '존 워 4'는 전설적인 킬러 존 워(키아누 리브스)가 자신을 속박해온 국제적 연합조직 최고회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펼치는 극한 액션을 다룬다.

최고회의가 파견한 조직원과 자기 목숨에 걸린 거액의 포상금을 노리며 달려드는 각지의 추격자들을 괴물 같은 활약으로 모두 처치하는데, 2시간 49분이라는 상영시간이 결코 길지 않게 느껴질 정도의 박진감 넘치는 활극이다.

그간 '존 워' (2015), '존 워- 리로드' (2017), '존 워 3: 파라벨름' (2019)으로 연이어 공개된 시리즈는 '서사는 간단하게, 액션은 독보적으로'라는 정신 아래 강력한 액션 팬덤을 양성했다. 갈수록 진화하는 액션신 덕분에 국내에서도 13만, 28만, 100만 명으로 개봉할 때마다 관객 수가 늘어났다. 첫 편의 흥행 이후 대개 쇠락하는 영화 시리즈 경향상 '존 워'처럼 뒤로 갈수록 흥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존 워' 시리즈는 스티븐트맨 출신이자 채드 스타헬

개봉 첫날 '스즈메의 문단속' 단숨에 제쳐 주짓수·쌍절곤 격투·총격에 카체이싱... 2시간49분 내내 손에 땀 쥐는 극한 액션 日 신사·佛 개선문... 전 세계로 무대 넓혀

스키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워쇼스키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스티브 코디네이터로 활약한 그는 카체이싱, 바이크체이싱 등 액션장르의 기본기는 물론이고, 주짓수와 총격 기술을 뒤섞어 근·원거리 공격을 모두 가능케 하는 독특한 기술과 총탄을 막아내는 방탄수트 등의 특이한 장치를 고안했다. '존 워 4'에서는 쌍절곤도 주 무기로 등장한다. '미션 임파서블' 시절 이미 동양 무술 시퀀스를 소화한 키아누 리브스는 전문적인 자세로 쌍절곤을 휘두른다.

견자단이 새롭게 출연한다는 점도 흥미진진하다. 존 워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낸 맹인킬러 케인 역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엽문' 시리즈로 할리우드에 서까지 이름을 날린 동양 대표의 액션 배우인 견자단은 시야 확보용 지팡이를 살상 무기로 활용하고,



오사가 본부를 지키는 사무라이의 딸 아키라(리나 사와야마)가 거구의 서양 조직원을 기술과 속도로 제압하는 시퀀스 역시 화려함 그 자체다.

뉴욕을 배경으로 하던 시리즈는 '존 워 4'에 들어 처음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해외로 발을 넓혔다. 일본 오사카는 극 중 최초의 대규모 액션 시퀀스가 전개되는 곳이다. 오사가 컨티넨탈 호텔 지배인으로 등장하는 코지(사나다 히로유키)는 친구 존 워를 지키기 위해 사무라이 의복을 갖춰 입고 고풍스러운 신사를 배경으로 액션 무대에 오른다. 장검을 들고

음식점에서나 쓸 법한 '핑동벨'을 사물에 부착해 상대 움직임을 간파해 처치하는 등 개성 넘치는 액션을 매끄럽게 소화한다.

동작 특유의 절도와 리듬감에 출연히 빠져든다. 뒤따르는 휘하의 무사들에게서 동양 무술 특유의 일사불란함과 정교함, 결기 등이 도드라진다.

압권은 프랑스 분량이다. 파리의 유명 관광지를 특색있는 지형물로 활용한다. 개선문 앞 회전구간에 멈춰선 존 워는 원을 그리며 빠르게 돌진하는 차량 사

이로 강인한 맨몸 액션을 펼친다. 차와 인간의 복잡한 동선을 설계한 치밀함에 감탄할 정도다. 사크레피르 대성당으로 올라가는 222개 계단에서 벌어지는 사투, 시지프스의 형벌을 연상시킬 정도로 가혹한 이후의 반복 전개는 그야말로 티켓값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감정적 이입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다.

북미에서는 지난달 22일 R등급(17세 미만 보호자 동반 관람가)으로 개봉해 누적 매출 1억4000만 달러를 넘기며 크게 흥행했다. 국내에도 평단과 관객의 반응이 모두 좋은 만큼 직전 작품 '존 워 3: 파라벨름'이 기록한 100만 관객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13일 배급사 레드아이스엔터테인먼트 한상욱 대표는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 도시가 안기는 시각적 매력 또한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꽃 기자 pgot@

새로 나온 책



세임 머신
캐서 오닐 지음/ 김선영 옮김/ 흐름출판/ 1만8500원
어린 시절부터 뚱뚱함이 콤플렉스였던 저자는 어느 순간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회적 시선이나 분위기가 특정한 기업의 이득이 된다는 걸 깨닫는다. 바로 다이어트 업계다. 비만뿐만 아니라 추함, 가난함, 중독 등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요인들은 모두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저자는 끊임없이 구동되는 이 작동 원리를 '수치심 기계' (세임 머신)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 기계를 해체하자고 제안한다.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은경 지음/ 아워미디어/ 1만9200원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한 1세대이자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한 고학력 세대. 신간은 현재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80년대생의 특성을 탐구한다. 책은 지난해 1866명의 80년대생 학부모에를 대상으로 교육관, 경제관 등을 묻는 50여 개의 질문을 토대로 한다. 출판사는 "가정, 학교, 회사에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80년대 학부모에 관한 개성적인 트렌드 보고서"라고 의미를 짚었다.



우리는 왜 숫자에 속을까
게르트 기거렌처 등 4명 지음/ 온워드/ 1만6800원
"내일 강수확률 30%". 나라마다 이 문장을 달리 해석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24시간 중 7~8시간 동안 비가 온다는 의미로, 이탈리아 밀라노 사람들은 전체 지역 중 30% 면적에서 비가 내린다는 뜻으로, 미국 뉴욕 사람들은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저자들은 수치에 대한 엉터리 해석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치명적인 오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병철 시인의 배달 에세이
시간강사입니다 배민합니다

시와 문학평론을 쓰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병철 시인

시간강사의 유쾌하고도 쓸쓸한 배달 일지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지원한 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국내 연수' 연구원에 선정됐을 때만 해도 내 앞날이 장밋빛으로 보였다.
그러나 박사 후 국내 연수가 종료되면서 월 고정 수입의 60퍼센트가 없어졌다.
인문학 연구자들은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하면 그야말로 '잉여 인간'이 된다.

지금의 나를 지키려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렇게 구직 사이트를 한참 뒤져보다가
문득 요즘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가 '핫'하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그래, 이거야!

값 16,000원

까치에 빼앗긴 수확... 호두나무엔 단단한 '긍정의 삶'

충북 영동군 '귀농' 15년째 호두 가꾸는 김제천씨 부부

김제천(69, 영동자연호두농원)이 아내와 함께 영동군 산골로 귀농해 호두나무 농원을 경영한 지 올해로 15년째. 농사 기술도, 안목도 폭익을 연륜이다. 그런데 알갭게도 소득은 여전히 신통치 않다. 그럼에도 구겨진 기색이 없다. 웃음이 흔하게 터져 나온다. 난처한 현실을, 남모름 애환을 얼버무리는 웃음이라기보다, 불운과 부진을 통째 이의 없이 받아들여 차라리 긍정하는 심리의 소산일테다. '뭔가 미묘한 간계가 침투해 나를 고생길로 데려간 건 아니지 않은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해 김제천은 귀농으로 치르는 흥역의 책임이 일면 선불리 일을 저지른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김제천의 농원은 완전히 외진 산중에 있다. 마을은 저 너머 멀리에 있어 고독을 벗 삼기에 적격인 곳이다. 산세가 기차게 수려한 것도 아니라 경관에 낫 놓고 종일 해찰하는 폐단이 생길 리도 만무하다. 즉 잡념 없이 일에 몰두, 종일 농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달리기에 딱 좋은 입지다. 게다가 김제천은 '뒤편 자청해 담벼넌 일에는 갈 데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의 소유자다. 해서 늘 일에 몰혀 살아왔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몸을 쓰겠다는 투로 부단히, 부지런히, 농사 하나에 전념하며 15년 세월을 살았다.

그는 대전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귀농했다. KT에 근무하다 뜻한 바 있어 명퇴를 하고 이 후미진 산골짜기에 들어왔다. 애초 농사에 입문할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귀농보다 귀촌하는 기본으로 이곳에 자리잡았다.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내려온 게 아니었다. 부부 둘이 먹고살기에 지장 없을 정도의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농업 소득을 바랄 이유가 없었다."

- 티는 어떻게 마련했나?

"귀농 전에 3만 평 규모의 임야를 사들였다. 마음을 내려놓고 한적하게 살기에 좋은 곳이라서. 그저 소소하게 텃밭 일구고, 가족이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의 몇몇 과일나무를 기르며 살기에 적당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 널따란 임야의 활용 방안을 구상하지 않은 채 덜컥 사들였다는 걸로 들린다.

"별 생각 없이 매입했다. 면적이 넓은 데다 가격도 싼 편이라 일단 사들였으니까. 그렇게 시골 생활을 시작하고서 감나무, 포도나무, 다래 등을 몇 그루씩 심었다. 도시에 사는 손자들을 가끔 불러들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별 할 일 없이 지낸다는 게 예상보다 따분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호두 농사다."

- 호두를 작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작목 선정을 위해 임업진흥청 같은 곳에서 농업교육을 받았는데 호두 농사를 권했다. 어느 과수와 달리 나무를 소독해 주지 않아도 되는 등 관리와 수확에 용이하다고 했다. 이러한 홍보에 이끌려 호두 농사를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 나 역시 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 어떻게 다르던가?

"재배부터 생산까지 일반 과수 농사에



충북 영동군 산골로 귀농한 김제천 씨 부부는 올해로 15년째 호두나무 농원을 경영하고 있다. 김 씨는 "형편이 된다면 귀농보다 귀촌을 해 농사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현명하다"면서도 "호두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신비로움과 깊은 감동이 느껴진다"고 미소를 지었다.

필요한 공정보다 수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퇴지가 어려운 외래 해충의 발생에 따른 피해와 어려움이 컸다. 호두나무가 1000그루로 늘어나면서는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힘겨웠다. 다른 과수들은 관련 기관에서 생산물을 수매해주지만, 호두 유통엔 그런 시스템조차 없다는 것도 뒤늦게 안 약점이다."

- 귀농 교육장 강사들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는 충고가 흔하던데.

"강사들은 교과서적인 이론에는 밝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둔감하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거. 나는 이러한 정황을 미처 몰랐다."

김제천은 귀농의 목적을 또렷하게 정하지 않은 채로 호두 농사에 뛰어 들었다. 그의 내부에 풍성하게 서려 있을 강인하고 낙천적인 기질에 힘입어 주저앉는 시늉조차 해본 적이 없지만, 15년간 흘린 비피땀과 남모름 고뇌의 총량은 아마도 드럼통에 담고도 넘칠 정도일지도.

귀농 자체를 만류하고 싶다

고달픈 노역은 임야의 토질을 보강하는 데에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일거리 시작한 호두가 고생길 내 땅은 온통 돌밭, 깨고 파냈다 외래해충에 멧돼지·삼·담비... 때까지 서리엔 당할 재간 없어

귀농 한다면 지역특산물 안전 가능하면 농사 말고 편하게 살라 그래도 농사엔 신비로움 있더라



알고 보니 땅 거죽 하부엔 온통 돌투성이 더란다. 해서 그는 땅을 파 돌들을 끄집어냈다. 큰 돌은 정으로 깨부숴 파냈다. 그러곤 퇴비를 듬뿍 묻어주는 작업까지 손수 시설했다. 허리 휘어질 고생이 자신했을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야생 짐승들의 훼방도 그를 괴롭혔다지.

"멧돼지들이 수시로 들이닥쳐 열매를 먹기 위해 호두나무 줄기를 마구 찢어놓더라. 청설모, 삼, 담비, 때까지 등도 방어하기 어려운 애들이다. 특히 무리 지어 날아와 호두 열매를 노련하게 파먹는 때까지의 실력엔 당할 재간이 없다."

- 농사라는 게 실로 만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저 옛날 전통사회의 농부들은 짐승들과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먹는 걸 관습으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게 차라리 현명한 걸까?

"딱히 방지책이 없다. 그런데 짐승들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야야! 애들아! 적당히 먹고 가라. 너희들이 먹고 남은 걸 우리가 거두면 된다!' 이렇게 체념하고 그냥 놔두는 거다. 그게 상책이라 생각해서다. 고만한 일로 속 끓일 게

뒀겠나?(웃음)"

- 호두 농사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은? "호두가 훼손되지 않게 열매를 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이걸 기계작업이 불가능하다. 대나무 장대로 조심스럽게 털어야만 한다. 호두의 딱딱한 껍질을 벗겨 알맹이를 일일이 끄집어내는 작업도 쉽지 않다. 펜치를 들고 하나하나 껍질을 까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세심한 손놀림이 필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겨울철엔 주로 아내와 함께이 작업을 한다. 농한기가 없는 게 호두 농사다."

- 연간 순수익을 말해줄 수 있나?

"800만 원쯤 된다."

- 저런! 너무 적다.

"그러니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나?(웃음) 잘나가는 포도 농가나 복숭아 농가의 수익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수준이니가 말이다. 다행히 연금이 있어 의식주 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귀농하려는 이들에게 내가 자주하는 말이 있다. 농사로 돈 벌기 어렵다는 거! 연금이라거나 믿을 만한 게 없다면 아예 시골에 오지 말라는 거!"

- 원점으로 돌아가 귀농을 다시 한다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싶지?

"복숭아 농사 정도가 좋겠지. 복숭아가 이 지역 특산물이기 때문이다. 귀농하려고든 부디 지역 특산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생산 여건과 유통 구조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귀농 자체를 만류하고 싶다. 형편이 된다면 귀농보다 귀촌을 해 농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현명하다."

성장하는 나무들의 신비로움

시골에서 느긋하게 살기. 족쇄 없는 영일(寧日)을 보내기. 그는 그런 걸 원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원했던 삶과 현재의 삶이 상당히 불일치한다. 그렇다고 낙심으로 찡그리고 살면 우습다. 별처럼 마냥 빛나는 삶이 어디에 있겠나. 으스스스 진저리칠 만한 현실이지만 이왕 내친 걸음 끝까지 가보겠다 한다. 농사 기술이야 이미 일취월장했다. 크고 알맹이가 딱 찬 고품질 호두를 생산한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덕분에 배우고 깨달은 게 많다. 궁리 끝에 늘 도달하는 건 반성이더라. 삶도 농사도 반성으로 돌아보면 얻을 게 많다."

- 산중에서 반성을 일삼아 뭔가 환해지는 게 있다면 그게 도인(道人)인데?(웃음)

"어! 내가 도통하려나? 하하하. 여하튼 시골의 삶을 로망으로 삼은 이들이 많지만 돈 욕심을 다 내려놓지 않고선 어렵다."

- 의식주 걱정 없고, 몸 안 아프고, 게다가 괜히 터져 나오는 웃음을 입에 매달고 산다면 그보다 나은 게 있을까.

"산골에 살다 보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내자식처럼 야며며 기르는 호두나무들이 우렁차게 성장하는 걸 바라보면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이걸 깊은 감동을 준다. 이러한 재미에 내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다."

호두 농사에 헌납한 15년 세월. 말 못할 고통이 왜 없었을까.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고통스러워야 살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고통도 지옥도 다 지나가게 마련이다.

글/ 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외화동전이 만드는 하나의 기적

하나금융그룹은 의료 사각지대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모금함에 모인 세계 각국의 외화동전을 분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 신청은 타이밍이 중요”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운전자금 고갈 시점’ 적절...전문가와 컨틴전시 플랜 짜야 회생신청=경영권 박탈? 오히려 법원서 회복의 길 열어줘

“회생신청은 타이밍이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최근 본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법인 회생은 적절한 시점에 신청해야 기업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를 지낸 이변호사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월에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LKB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기업 회생과 가상자산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이변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기업회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8월에는 브릿지론 만기가 도래하는 데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9월이 다시 도래하면 자산평가도 다시 시작된다”며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산 재평가 후 상황이 좋지 않으니 대출 일부를 회수하려는 콜이 들어올

텐데, 기업이 영업 부진 등으로 이를 감당할 상황이 안 된다”며 “그럼 9월부터 약 6개월간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위기 대응이 스스로는 불가능한 기업들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지금까지는 회사가 누더기가 될 때까지 기업 스스로 자금 조달을 하다가 망하기 직전 최후의 선택으로 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진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자문 없이 계열사 사이에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버티다 최후로 회생 신청을 하면 배임·횡령으로 귀결돼 회생에서 배제된다”며 “살리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국은 경영권도 다 뺏기고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받게 돼서 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금이 일정 이상 떨어지면 기업 혼자 분투하지 말고 회생 전문



이정엽(오른쪽부터)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가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 심진우 배철특허법률사무소 책임연구원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가와 함께 컨틴전시 플랜을 짜야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회생 타이밍은 ‘운전자금의 고갈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회계사도 “회생 신청하면 경영주는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는데, 오히려 회생법원은 기존 경영자가 다시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며 “폐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일찍 대응하면 회생을 통해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회생 절차에 들어서면 일단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데, 이때 일부 해외에서는 금융 펀드가 잘 되어 있어 도움이 된다”며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해외 연수와 연구 등을 통해 이런 제도는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서 회계사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회생 절차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며 “이런 부분을 참고해 회생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에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선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삼성중공업 정진택(사진) 사장을 제19대 회장에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정진택 회장의 임기는 2023년 4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2년이다.

신임 정진택 협회장은 입사 후 설계업무부터 시작했으며 영업팀장, 리스크관리팀장, 기술개발본부장, 조선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삼성중공업을 이끌고 있다. 정진택 협회장의 리더십 아래 삼성중공업은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수주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다졌다.

정진택 협회장은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MBA를 마쳤으며 설계부터 영업, 생산, 연구개발, 경영지원 등 다양한 업무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조선업계의 화두인 친환경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 생산현장 인력 수급 문제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웃들 기자 flowerslee@

인사

-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 한용호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오형록 △기업집단관리과장 민혜영 △하도급조사과장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이태휘 ◇과장급 전보 △시장감시정책과장 한경중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심재식 △기업거래정책과장 권순국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신용희 △소비자안전교육과장 오종희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이희재 △특수거래정책과장 편유림 △제조업감시과장 피계림 △약관특수거래과장 김동명 △입찰담합조사과장 오동욱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영재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고인혜 △내부거래감시과장 안남신 △부당지원감시과장 임선정 △기술유통조사과장 김성한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류용래 △기업결합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장혜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송정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김호태 ◇과장급 승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태중
- ◆사폐론 △사업개발실장 전무 오연삼

부음

- ▲김영준 씨 별세, 이순희 씨 남편상, 김성은(광명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성오(한국경제TV 영상취재팀 영상기자) 씨 부친상 = 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27-7566
- ▲정병국 씨 별세, 정인기(대전시교육청 공보관) 씨 부친상 = 13일,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5일 오전 8시, 042-611-3979

시진핑, LGD 광저우 공장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을 방문해 한국과의 우의를 강조했다.

1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LG디스플레이 제조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사진> 시 주석은 특히 LG디스플레이 생산공장에서 관계자들에게 한국과의 우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현지 산업 현장을 시찰하면서 대외 개방, 양질의 제조업 발전, 기업의 기술 혁신, 자체 브랜드 구축 등의 현황을 살펴봤다. 변효선 기자 hsbun@·사진 인민망

최정우 회장, 스티븐 비건과 글로벌 전략 논의

포스코아메리카 고문 자격...미중 관계·IRA 등 현안 강연

포스코그룹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사진 오른쪽) 포스코아메리카 고문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최정우(왼쪽)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및 주요 그룹사 대표들은 포스코아메리카 고문 자격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고문과 그룹의 주요 글로벌 현안 및 전략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비건 고문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국제정세 변화 속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전략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미·중 관계와 IRA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통상정책 변화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후 그룹 주요 경영진과 비건 고문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나심 푸셀 전 비상원재정위원회 국제통상법무실장과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정책 변화, 글

로브 에너지 전환정책 등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철강, 이차전지소재·원료 및 에너지 등 그룹 핵심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자유토론에서 미·중 경제블록화 심화 속 그룹 사업방향, 미국을 비롯한 인도 등 제3국의 철강 및 에너지산업 투자환경 변화, 이차전지소재 및 원료사업 관련 미국 내 IRA 동향과 통상기조, 글로벌 투자기관의 ESG 평가 방침 등 그룹 사업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비건 고문은 “철강을 넘어 리튬, 수소, 이차전지소재 등 7대 핵심사업을 중점 육성해 그룹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회사의 목표는 옳다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여러 제



언을 하는 등 지속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앞서 지난 21년 8월 비건 고문이 소속된 컨설팅회사와 포스코미국 법인인 포스코아메리카가 자문 계약을 맺고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했다. 비건 고문은 지난 21년 그룹 전 임원들이 참석하는 포스코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포스코그룹의 주요 현안들에 관해 자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사진제공 포스코그룹

폴란드 총리 “우크라이나, 한국산 포탄 필요...美 직접 개입을”

“러·중 반발 우려...바이든이 지원 제공한다는 확신 줘야”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사진)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포탄이 필요하며,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탄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포탄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의 포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대량의 포탄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모라비에츠키 총

리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보다 훨씬 더 많은 포탄을 갖고 있으며, 매달 전장에서 발사하는 양도 훨씬 더 많다”며 “한국이 보유한 엄청난 양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산 포탄 지원) 협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적인 대응에 맞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버핏 “더 많은 은행 파산할 수 있지만 예금자는 괜찮다”

“은행들이 각출한 연방예금보험공사서 지원금 나와”

워런 버핏(사진)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예금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현지시간) 버핏 회장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은행 파산은 끝나지 않았다”며 “더 많은 미국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 관리자들의 어리석은 결정이 미국 시민 전체를 당황하게 해선 안 된다”며 “이건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예금자 지원금은 연방정부

예산이 아닌 시중 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공한 자금을 기반에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정부 자금이라면 예금자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버핏 회장은 “대중들은 FDIC가 연방정부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FDIC의 모든 비용은 은행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들은 연방 정부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닌데, 대중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예금자들은 자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며 “내년에 어떤 예금자도 돈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데 베테랑하겠다”고 자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승현 칼럼



주필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 결정이 역사 책갈피에서 소환한 인물이 있다. 미국의 14대 연방대법원장(1953~1969년) 얼 워런이다. 1966년 미란다 판결을 비롯해 미 형사사법을 바꾼 다수 판례를 끌어낸 인물이다.

법원 판결은 때로 피의자만 보호한다는 논란을 부른다. 그 안결판에 해당하는 것이 미란다 판결이다. 청소년기부터 소년원을 들락거린 미란다는 1963년 1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돼 자백을 하고 진술서도 썼다. 하지만 국선변호사 앨빈 무어가 등장해 판을 뒤집는다. 미란다가 변호인선임권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몰고 늘어진 것이다. 범행 실체가 아니라 수사 절차에 초점을 맞춘 변호였다.

워런의 법정은 무죄 방면을 택했다. 수사의 절차적 흠결을 중시해 자백의 증거력을 배척한 결과였다. 미국은 발각 뒤집혔고 '미란다 고지'가 일반화됐다. 미란다 같은 흉악범을 다시는 방면하지 않기 위해서. 그 판결이 부른 논란은 지금도 진

행형이다. 하지만 근대법의 핵심인 적법 절차 원리를 형사사법에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작지 않다.

적법절차 원리는 우리 헌법적 원리로도 존중된다.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입법절차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검수완박법 결론은 그래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두고두고 그럴 것이다. 현재는 '실질적 토론을 보장하는 다수결 원칙'이 훼손됐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꿈수가 난무한 저간의 사정을 제 손금처럼 흰히 들여다봤을 것이다. 현재는 그런데도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쟁점에 5대 4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날 선 반응이 쏟아진다. '커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는 황당한 논리란 것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정색을 하고 성명을 냈다. "과정과 절차가 헌법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나 궤변"이란 성명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수의 힘을 가진 정치 세력이 똑같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법을 만들어도 중단 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

런은 뭐라 평할까. 적어도 칭찬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진영논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관점이 유력하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5명, 또 반대한 4명은 나란히 특정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 어떤 안경을 쓰고 봐도 진영 해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실제적 진실은 다들지도 모르지만 이런 관측이 대두되는 것만으로도 씁쓸하다. 헌법적 가치가 최우선시되어야 할 현재의 풍경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진공 속에서 피고 지는 꽃은 없다. 적어도 물은 필요하고 흙도 있어야 한다. 햇빛도 없어서는 안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견강하냐에 따라 어떤 경제는 흥하고 또 어떤 경제는 망한다. 대한민국 제도의 근간인 정치와 사법에서 매우 불길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다들 진영논리에 갇히다 못해 이제 헌법적 가치마저 뒷전이다. 정상 이 아니다. 국가 경제가 홀로 순항할 수 있을까. 진공 속에서 과연 꽃이 피어날까. 낙관할 계제가 아니다.

어찌해야 하나. 두루 배우고 반성할 일이다. 우선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35세 젊은 의원 오영환에게서 배우자. 오 의원은 "오로지 진영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라고 했다. 자기반성에 가깝지만, 실은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진영 논리의 병폐를 꾸짖는 일같다. 우리 정치판만 젊은이의 분노와 좌절을 부르는 것일까. 현재를 비롯한 사법부부는 어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할 필요가 있다. 반성 없이는 개선의 여지도 없으니까.

워런에게서도 배우야 한다. 워런은 미공화당 출신이다. 그러나 자기 진영에서 반길 리 없는 판결을 쏟아냈다. 그렇게 범사회적 각성과 변화를 이끌었다. 그를 임명했고 그 판결 방향에 적절하게 낙담했던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워런이 진영 논리에 갇혀 뻔한 판결만 줄줄이 내놓았다면 어찌 됐을까. 미국 사법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 판례도, 아이젠하워의 탄식도 없었을 것이다. trala2023@

상대 악마화만 노리는 정치 현실
준엄히 꾸짖으며 불출마 택한 의원
'검수완박법' 논란 자초한 현재도
진영 논리서 자유로운지 돌아봐야

일, 삶, 배움

이상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 인재 양성과 창의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형 인터넷 도서 홈페이지나 학술 관련 아카이브에서 '창의(력) 교육'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몇 개의 교재를 제외하고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수학, 과학 학습지 소개,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한 창의 프로그램 소개가 대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주도형 학습과 프로젝트 수행

학교 현장에서 창의교육 학습법은 대체로 교사주도형 학습보다는 학생 자기주도형과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교사가 학생에게 사전 배경지식을 전부 아니면 최소한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여 해결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후자는 어떠한 문제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실천적 행동을 요구한다.

교육 방식에서 배경 지식의 최대한 배제 원칙은 루소의 '에밀'의 영향이 커 보인다. 과거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부정

한 루소는 진정한 교육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며 교사의 주관적인 관념을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럴 것이 17세기 초부터 발생한 베이컨의 경험주의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인간의 역사나 관습보다 관찰, 과학, 합리적 의심을 중요시 여겼으며, 18세기 프랑스 혁명 전후로 과거의 지식과 전통은 개인 이성의 확장과 사회 진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하는 지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산 아이작 뉴턴은 "내가 이루어 낸 많은 성과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조가 쌓아 놓은 업적과 성취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과학적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의미다. 역사적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한 철학자 가다머는 "아무리 개인의 이성이 뛰어나도 고작 100년을 사는 우리가 선조들이 수천 년간 쌓아 온 업적을 단박에 능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업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존 듀이의 교육철학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의교육은 없다

존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책에서 학생들이 교재에 적힌 '냉동저장한 지식'만을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이 뭔가를 경험하고 가치 체험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사고를 넓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듀이는 소수만의 고등교육을 위한 교재 발굴이나 교과과정은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지식이 새로운 창의력의 바탕

실천을 중히 여기는 프로젝트 수행에서 학생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충분한 배경 지식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영국의 사례지만 배경지식을 안 학생들 그룹이 배경지식이 없던 그룹의 학생들보다 프로젝트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배경지식을 경시하는 창의교육은 오히려 평범한 학생들을 수업의 방관자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배경지식의 암기 위주 시험인 수

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능 폐지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가장 잘한다는 중국의 주입식 대학입시나 30명가량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대학입시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수능이 폐지되면 대학별 보고사가 되거나, 아니면 미국처럼 수능이 최소한의 자격시험이 되고 학점은 행태 도입으로 대학별 선택과목과 수준을 지정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방 학교 대부분은 교사 부족으로 대학의 요구를 맞추기 어려워 지방 학생의 대학 진학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창의교육이 어떠한 실제적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허구의 이데올로기에 가까우며 배경지식의 습득과정이 결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선조가 쌓아 놓은 지식의 보고를 익힐 때 비로소 새로운 창의력도 나타날 수 있다. 배경지식을 무시한 창의교육은 자칫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으로 흐를 수 있으며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루이스 셸리번 명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미국 건축가. 시카고의 오티토리엄빌딩 설계를 시작으로 시카고파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다. 생활 용구로써 건축의 견고한 형태를 철강으로 우선 조립하고, 그 몸체 부분과 사용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써 장식은 매우 중시하는 태도는 그의 작품에 시종일관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856~1924.

☆ 고사성어 / 고기양단(叩其兩端)
'양쪽 끝을 묻는다'라는 말이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대답하는 양극단의 주장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피서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뜻한다. 논어(論語) 자한(子罕)이 원전. 공자(孔子)는 대부분의 사람이 남을 가르칠 때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해주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는가? 알면서 알려주지 않은 것은 없다. 가령 어떤 비천한 사내가 나에게 찾아와서 묻더라도 그가 마음을 비우고 성실한 태도로 임한다면 나는 그 일의 두 끝(兩端)을 반문하여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아낌없이 다 말해준다[吾有知乎哉無知也 有鄙夫問於我 空在如也 我知其兩端而竭焉]"라고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찰나족
버스나 지하철에서 웹서핑이나 이메일을 체크하고, 외출해서는 맛집이나 낯선 장소를 바로 검색해 찾아본다. 금강한 것이 생기면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부르는 말이다.

☆ 신조어 / 간지나다
폼 나다. '뻘대나다'와 동의어다. 어원은 일본말 '간지(感)'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박상인 / 자본시장부



에코프로는 기자가 자본시장을 취재하며 두 번째로 본 급등주다. 첫 번째는 신풍 제약이었다. 급등주라는 이유만으로 에코프로를 신풍제약과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

신풍제약은 코로나 시절 2200%가 넘게 오른 이른바 테마주였고, 에코프로는 전기차 산업 성장세와 맞물려 실체와 가치가 있는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에코프로를 가치주로 접근

'에코프로'와 가치주 투자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사실이 시점에서 에코프로를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런 점에서 12일에 나온 하나증권의 매도 리포트는 눈엣가시 같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날 16% 넘게 떨어졌으니 말이다. 일부 주식 커뮤니티에선 애널리스트 신변 위협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 같은 매도 리포트 불똥은 기자들에게도 튀었다. 리포트를 언급한 기자 댓글을 보면 대부분 뉘엿이기 때문이다. "매도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 검찰 수사해야 한다", "이 리포트를 받아 쓴 기자도 공매 세력과 한통속이다" 등 잘나가고 있는 에코프로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자마자 2년 전 신풍제약 급등 관련 기사 댓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도 "일부러 신풍 깎아내리네", "기자는 기업에 대해 공부를 더하고 써라" 등의 비판이 나왔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20만 원을 넘어서던 주가는 2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주주들은 2년 넘게 '가즈

아'만 외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에코프로 주식을 1조3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특히 3월엔 9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다. 결국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 물량을 떠안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은 셈이다.

에코프로 주가가 당장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직장동료가 사서, 누군가 추천해줘서 아니라 '가치주에 투자한다'는 초심을 지키고 있는지 이제 스스로 돌아볼 때다. si2020@

이슈&인물

올해 첫 상장 신약개발 기업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시총 3조 잠재력...조만간 글로벌 빅딜”

“국내 바이오업계는 빠른 결과를 원하다 보니 기술이전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이 제품화까지 이어져야 바이오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은 바이오기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이중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치료제를 연구·개발(R&D)하는 기업으로, 올해 증시에 입성한 첫 번째 신약개발 회사다. 지난달 3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순조로운 우상향 흐름이다. 안정적인 출발에 최근 본지를 만난 이 회장의 표정도 밝았다.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바이오협회 이사장이던 2013년만 해도 K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다”면서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해를 만하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신약으로 10조 가치 기업 보여줄 것”

지아이이노베이션은 기업공개(IPO) 전부터 안팎의 기대가 컸다. 2017년 설립된 이 회사는 2건의 파이프라인을 전 임상 단계에서 총 2조3000억 원 규모로 기술이전했다. 한때 장외시장에서 시가 총액 1조 원을 넘겼고, 프리 IPO 당시 7000억 원대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신약의 가능성을 숫자로 충분히 인정받은 셈이다.

실전은 녹록치 않았다. 공모가는 희망 밴드를 밀든 1만3000원, 공모가 기준 시총은 3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얼어붙은 바이오 IPO 시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 회장은 “기회가 될 때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잇따른 투자 유치로 2025년까지 R&D가 가능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였다. 상장은 회사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온전히 신약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이 회사에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자금에 허덕이는 회사가 아니다.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들어가고, 이후 실적으로 올라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총은 5000억 원대에 안착했다. 이 회장은 내년까지 시총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추가 기술이전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흑자전환도 이따로 전망했다. 물론 1조 원에서 끝은 아니다. 본격적 성장세는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이 상업화에 성공한 다음부터다. 시점은 2030년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30년 판매허가가 나면 시총 3조 원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신약으로 10조 원 가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지아이이노베이션이 앞장서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5조 블록버스터 ‘졸레어’보다 우수”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은 최근 개발에 탄력을 받았다. 강력한 면역글로블린 E(IgE) 결합력과 자가항체 결합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 시장의 미충족 수요(unmet needs)를 채울 치료제로 평가받는다. 2020년 유한양행에 전 세계(일본 제외) 권리가 1조4000억 원 규모로 기술이전됐다.

이 회장은 GI-301이 경쟁약물인 ‘졸

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맵)’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했다. 졸레어는 글로벌 매출 5조 원의 블록버스터 항체 바이오의약품으로, 알레르기성 천식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만성 비부비동염 치료에 쓰인다. 그러나 독성으로 6세 이하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시장 규모가 큰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의 약 절반에게 듣지 않는다.

유한양행은 6월 유럽에서 GI-301의 임상 1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일본에 대한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미 알레르기에 특화된 3곳의 회사와 이야기가고 있다. 연말까지는 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GI-301의 글로벌 기술이전도 기대하고 있다. 안센이 사들인 ‘레이저티닙’처럼 유한양행이 다시 한번 글로벌 제약사와 딜을 맺는 방식이다. 그는 “항암제는 워낙 많은 회사가 경쟁하고 있다.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은 경쟁강도는 약하면서도 시장 규모는 충분히 훨씬 유망한 시장”이라며 “졸레어보다 우위가 뚜렷해 기술이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지역 한정으로 기술이전된 GI-101도 글로벌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중인데, 개발사 머크는 특허방어를 위해 피하 주사(SC)제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경우 키트루다와 함께 투여할 치

료제도 SC제형이어야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SC제형으로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 ‘GI-102’이다.

인터뷰 당일 아침에도 이 회장은 글로벌 제약사와 화상 마팅을 가졌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각 분야별로 1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GI-101과 GI-102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K바이오 존재감...이젠 해를 만하다”

이 회장은 30여 년간 바이오업계에 몸담은 업계 전문가이자 전문 경영인이다. LG화학 바이오연구소 센터장과 녹십자·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증권당 부회장,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SCM생명과학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그는 “바이오협회 이사장이던 2013년만 해도 K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다”고 회상하며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해를 만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바이오선진국으로 떠오른 미국이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는 사람은 가족(Family)·친구(Friend)·바보(Fool)의 ‘3F’뿐이란 농담 섞인 진담이 존재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이 벤치마킹하는 리제네론은 2005년 시총 1조 원대에 불과했지만, ‘듀피젠트’와 ‘아일리아’ 제품화로 현재는 시총이 115조 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글로벌 제약사 한 곳이 연간 15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을 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를 총량라해도 4조 원에 그친다”면서 “바이오벤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력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 K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규제당국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규제인력을 육성해야 K바이오가 살아난다”며 “바이오시밀러가 경쟁력을 갖게 된 것처럼 신약 개발도 공격적으로 지원해서 차별화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euna@

공모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상장 후 우상향, 시총 5000억대

내년 1조 넘으며 ‘흑전’ 전망

알레르기 치료제 ‘GI-301’

일본 기술이전 올해안 마무리

글로벌 제약사와 딜 진행 기대

바이오벤처 자금력 중요한데

정부 지원 아직도 소극적

신약개발 공격적 육성 필요

료제도 SC제형이어야 환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SC제형으로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 ‘GI-102’이다.

인터뷰 당일 아침에도 이 회장은 글로벌 제약사와 화상 마팅을 가졌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각 분야별로 1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GI-101과 GI-102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K바이오 존재감...이젠 해를 만하다”

이 회장은 30여 년간 바이오업계에 몸담은 업계 전문가이자 전문 경영인이다. LG화학 바이오연구소 센터장과 녹십자·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증권당 부회장,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 SCM생명과학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그는 “바이오협회 이사장이던 2013년만 해도 K바이오는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었다”고 회상하며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해를 만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바이오선진국으로 떠오른 미국이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바이오 벤처에 투자하는 사람은 가족(Family)·친구(Friend)·바보(Fool)의 ‘3F’뿐이란 농담 섞인 진담이 존재했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이 벤치마킹하는 리제네론은 2005년 시총 1조 원대에 불과했지만, ‘듀피젠트’와 ‘아일리아’ 제품화로 현재는 시총이 115조 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글로벌 제약사 한 곳이 연간 15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을 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를 총량라해도 4조 원에 그친다”면서 “바이오벤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력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 K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규제당국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립보건원(NIH)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규제인력을 육성해야 K바이오가 살아난다”며 “바이오시밀러가 경쟁력을 갖게 된 것처럼 신약 개발도 공격적으로 지원해서 차별화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사설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요구는 금물이다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6개월 연속 9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을 종합하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1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2822만3000명과 비교하면 89.07%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04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020년 10월 처음 90%를 밑돈 이래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1월 2436만 7000명(89.05%)보다는 다소 개선됐다지만 절름반등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취업의 보물창고다. 그 통계가 이상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이 넘도록 취업 비중이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는 것마저 무심히 넘어갈 수는 없다.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지난달 308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비중이 10.93%다. 2020년 10월 10.07%로 처음 10% 선에 닿은 이후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회복 속도가 느려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 문제에 대처하려면 중

소기업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용통계의 걱정거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통계청은 전날 3월 취업자 증가폭이 10개월 만에 반증했다는 통계를 내놓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은 외려 4만9000명 줄어 석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번 감소 폭은 2021년 8월(-7만 6000명) 이후 가장 컸다. 도·소매업(6만6000명)과 건설업(2만 명)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60세 이상이 주도했다. 노인 일자리를 빼면 취업자는 7만8000명 줄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생적 시장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다.

일자리 통계가 우려를 낳는 국면에 18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1% 인상됐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2배에 달하는 인상 행진을 했다. 이번에 나온 1만2000원 요구는 24.7% 인상을 뜻한다. 설상가상이다. 그러잖아도 코로나 사태 때 큰 타격을 입어 회복에 애쓰는 중소기업계는 그저 암담할 것이다. 이래야 어찌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나. 무리한 인상 요구는 금물이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한 톨



신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대 상권 명성 되찾을까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활기차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거리, 문 닫은 점포 앞에 붙은 임대안내문이 황량함을 전한다. 학생들의 소비패턴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다. 2013년 서울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이곳은 의류·잡화 소매점과 이·미용원이 권장업종으로 정해졌다. 권장업종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권장업종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점 가능 업종이 제한돼 상권의 몰락을 부추겼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도시건축위원회를 열어 이대 앞 건축물 권장업종도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대 상권은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신태현 기자 holijak@

SAMSUNG

스타트업의 가능성과 삼성전자의 노하우가 만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가 함께 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기업은 여기서 태어날 거예요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지역으로 확산

삼성전자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대구, 광주에 이어 경북에도 출범합니다.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